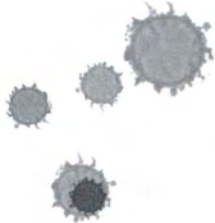


사운 이종학 기증 사진 엽서 I

사진 엽서로 읽는 근대 수원



수원박물관
SUWON MUSEUM



사운 이종학 기증 사진 엽서 I

**사진 엽서로 읽는
근대 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기관으로 수원박물관이 2008년 10월 1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수원박물관은 선사시대에서부터 근현대 수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수원역사박물관'과 사운 이종학 선생이 기증한 2만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사운이종학사료관', 우리나라 서예사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한국서예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입니다.

이번에 발간되어 선보이는 '사운 이종학 기증 사진 엽서' I 권은 사운 이종학 선생이 기증한 사진엽서 7,000점 가운데 수원과 관련한 엽서를 모은 것입니다. 이는 화성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사진엽서와 근대 수원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사진엽서들입니다.

사운 이종학 선생은 오랜 세월 수원에서 생활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셨습니다. 수원에 대한 사랑도 매우 커서 '화성(華城)'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모으고, 화성축성의 기록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영인하여 국내외 연구기관과 관련 학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운 이종학 선생의 기증유물은 우리 박물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근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들 사진엽서 가운데 의미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진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박물관에 좋은 유물과 자료를 기증해주신 기증자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일반 시민들의 문화수요에 부응키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박물관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며 다양한 유물들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 분들과 고인이 되신 사운 이종학 선생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 사진집이 기증자 분들의 뜻을 기리고 수원의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향기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31.

수원박물관장 이 달 호

사운 이종학 선생의 삶과 기증자료



사운 이종학 선생의 삶

사운 이종학 선생은 1927년 10월 1일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244번지에서 아버지 세기(世基)와 어머니 김아기(金岳只) 여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8세 때 부친을 여의었으나 부친의 몫을 대신한 모친의 사랑과 조부 병준(丙駿)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다.

이 지역은 1919년 3·1운동이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역사적 고장이기도 하다. 이종학 선생은 일제강점기의 여타 시골의 어린이처럼 고향에서 한학을 공부하며 성장하였다. 18살에 해방을 맞이한 선생은 해방공간의 싱그러운 공기를 만끽하면서 지역의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이후 공군으로 복무하였고, 책을 맘껏 읽기 위해 서울에서 고서점을 열었다. 1955년 종로 5가에서 '권독서당' 책방 문을 열었고, 이후 1957년 연세대학교 앞에서 고서점 '연세서림'을 운영하면서 고서와 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 교육자였던 서인달(최남선 등과 교유가 있었던 유명한 장서가) 선생으로부터 영토사, 임진왜란·충무공 관련 자료 등을 인수받는 것을 계기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자료 수집에 전념하였다.

이후 이순신 장군 연구에 집중하여 '난중일기' 번역본의 오역을 바로잡고, 충무공이 수전(水戰)과 육전(陸戰)에 모두 능했다는 사실과 거북선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의 연구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축으로 독도와 일제의 침략사로 외연이 확대되었다. 특히 독도를 제대로 지키는 길은 일본 스스로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한 자료와 그들의 영토야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반박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1980년대 초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절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독도·간도·녹둔도·백두산 등의 영토 관련과 한일관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을 40여 차례 방문했고 중국·대만·필리핀·프랑스 등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는 일본의 망언이 있을 때마다 화형식과 서명 운동과 같은 일회성 시위운동을 지양하고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자료와 논리가 있어야 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계에선 명량대첩과 관련, 충무공 장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76년 『사대문궤(事大文軌)』 발굴로 장계초록 및 임진왜란 때 거북선은 5척이란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오랜 의문을 풀었고 이와 함께 '대동여지도'가 고산자 김정호의 단독 제작이 아니라 삼도수군통제사 신현(申櫓)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사실도 밝혀냈다.

“역사가 대대로 누릴 정신의 옥토라면 지금 제대로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를 김매기’ 한다는 뜻의 사운(史芸)이라는 호를 스스로 지었다. 이러한 일념으로 이후 한일병합의 기록인 『조선총독보고 한국 병합시말 부록 한국병합과 군사상의 관계』 등을 최초로 발굴, 한일병합의 불법 강제성을 밝혀냈다. 그는 이 기록들을 1999년 7월 제기된 한일합방 무효소송의 증거자료로 일본 고등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영토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해 방위개념인 동해(東海)를 고유명칭인 조선해(朝鮮海)로 바꾸어야 한다는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그런가 하면 학술자료를 발간하여 학계에 기여하였다. 그중에 학계가 포기했던 동학 관련 자료집 발간 사업을 인수받아 1996년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전30권을 발행하였고, 같은 해 수원의 화성축성 2백주년을 기념하여 ‘정조대왕 및 충효자료전’을 개최하고 『화성성역의궤』 한장본 200질을 원형대로 복간하여 국내외 연구자와 기관에 기증하였다. 이는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향토사를 바로세우는 일에도 앞장서, 1986년 고향인 화수리 3·1운동 유적지에 비문을 직접 찬하여 기념비를 건립했고, 경기도 지역의 충효 유적지를 발굴, 복원하였다. 장학사업도 오랫동안 계속 해 수원 화서동 소재의 고아원 <동광원>을 20여 년간이나 후원하였고, 고향의 초·중·고교에 장학사업을 펼쳤다.

사운 이종학 선생의 기증자료

사운 이종학 선생은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자료들을 적당한 곳으로 보내 활용케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많은 분야의 자료를 기증하였다.

독립기념관에는 개관 직전 국민모금 기간에 전국에서 제1호로 사료를 기증한 이후, 30여차에 걸쳐 총 4천 여점을 기증하였다. 기증품 중에는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황산대첩비』 탁본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육군성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지도구역일람도』 같은 독도 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1994년 동학혁명 백주년을 기념하여 선생의 주관 아래 ‘동학백주년기념 이종학 소장 자료전’(천도교총부 1층 전시실)을 개최한 뒤, 천도교총부에 전시자료 500여점 모두를 기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주에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전주역사박물관)을 건립, 이들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선생이 가장 힘을 기울인 분야였다. 때문에 가장 먼저 자료를 기증한 곳이 아산 현충사이다. 1980년대부터 4차에 걸쳐 40여점을 기증했다.

또한 40여 년 간 수집한 독도 및 영토관련 자료들은 선생이 주력한 분야이다. 특히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우리쪽 자료보다 당사국인 일본이나 제3국의 자료가 그 가치가 크다는 생각에서 일본·중국·대만·필리핀·프랑스를 방문, 수집한 것들이다.

그리고 독자적인 영토박물관 건립을 준비하여 1997년 8월 8일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을 개관했다. 이들 전시자료는 거의 이종학선생이 기증한 것으로 기증자료는 총 400여점이다.

기타 토지박물관·경기도박물관 등을 비롯하여 국공립 대학교서관 등 많은 기관 단체에도 관련자료를 기증하였다.

특히 사운 이종학 선생은 1974년 수원으로 이사하여 평생을 고향인 수원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1996년 충효(忠孝)관련 자료 200여 점을 수원시에 기증하였고, 사후 유족들은 선생의 뜻에 따라 2만점에 가까운 자료를 2004년 1월 16일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이 가운데 사진엽서는 7,000여점에 이른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사운이종학사료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 * 본 사진집에 실린 사진 엽서는 1945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사운 이종학 선생이 수원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 * 실제 유물의 크기는 모두 사진 엽서로서 가로 14cm, 세로 9cm가 기본 크기이다.
- * 사진은 실제 엽서의 형태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당시 사진 엽서의 설명문도 보이도록 하여 당시의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 * 원고 집필은 '사운 이종학 선생의 삶'과 '엽서를 통한 근대 수원 읽기' 부분을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이, 각 주제별 설명은 이동근(수원박물관 전문위원)이 담당하여 사진 엽서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시대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01 화성행궁과 화령전	11
02 화성 성곽과 주변 풍경	17
2-1 사대문(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룡문)	
2-2 화홍문, 방화수류정	
2-3 봉돈	
2-4 축만제(서호)와 향미정	
03 권업모범장	53
04 수원고등농림학교	63
05 수원시가 풍경 및 기타.....	73



여 백

01 화성행궁과 화령전

화성을 쌓은 것은 현릉원을 보호하고 행궁을 호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조대왕의 언급처럼 화성행궁은 화성의 중심이었다. 정조대왕이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성대하게 치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과거시험, 양로연 등의 각종 행사를 열었던 역사적 현장이었다. 정조 이후 조선의 모든 임금의 수원을 찾을 때 머물던 별궁이었고, 평상시에는 수원유수가 머물던 곳이었다.

일제는 한일병합 이후 대한제국의 상징인 화성행궁을 철저히 파괴하며 경찰서, 토목관구 등 식민통치 기구와 병원 등을 세우면서 식민통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화성행궁의 정전 건물이었던 봉수당은 식민지적 시해를 표방한 수원자혜의원이 들어섰다. 이후 1923년부터 봉수당을 비롯한 화성행궁 대부분의 건물을 허물고 2층의 병원을 건축함으로써 근대 일본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봉수당을 비롯한 화성행궁의 의도적인 파괴였다. 행궁의 장용외영 군인들이 입직숙위를 썼던 북군영에는 수원경찰서를 만들어 식민통치에 활용하였다.

화성행궁에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낙남헌은 1938년 매향교 옆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하기 전까지 수원군청으로 사용되었다. 일제는 낙남헌을 개조하여 벽을 치고 현관을 만들어 일본식 건물처럼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화령전은 1801년 순조가 부왕 정조의 어진을 모신 사당이었다. 1908년 정조의 어진이 덕수궁 선원전으로 모셔가기 전까지 조선시대 내내 수원을 대표하는 신성 공간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1910년 10월 자혜의원을 화령전에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신성성을 파괴하였다. 이후 자혜의원을 화성행궁 봉수당으로 이전함으로써 화성행궁 자체를 파편화하였다.

또한 수원판관이 머물며 실질적인 행정을 보던 이아는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활용하였다.





화성행궁 신평루



(有雲堂光濟) (水9) FAMOUS PLACE AT SUIGEN (院醫憲慈現) 樓豐新原水 (所名鮮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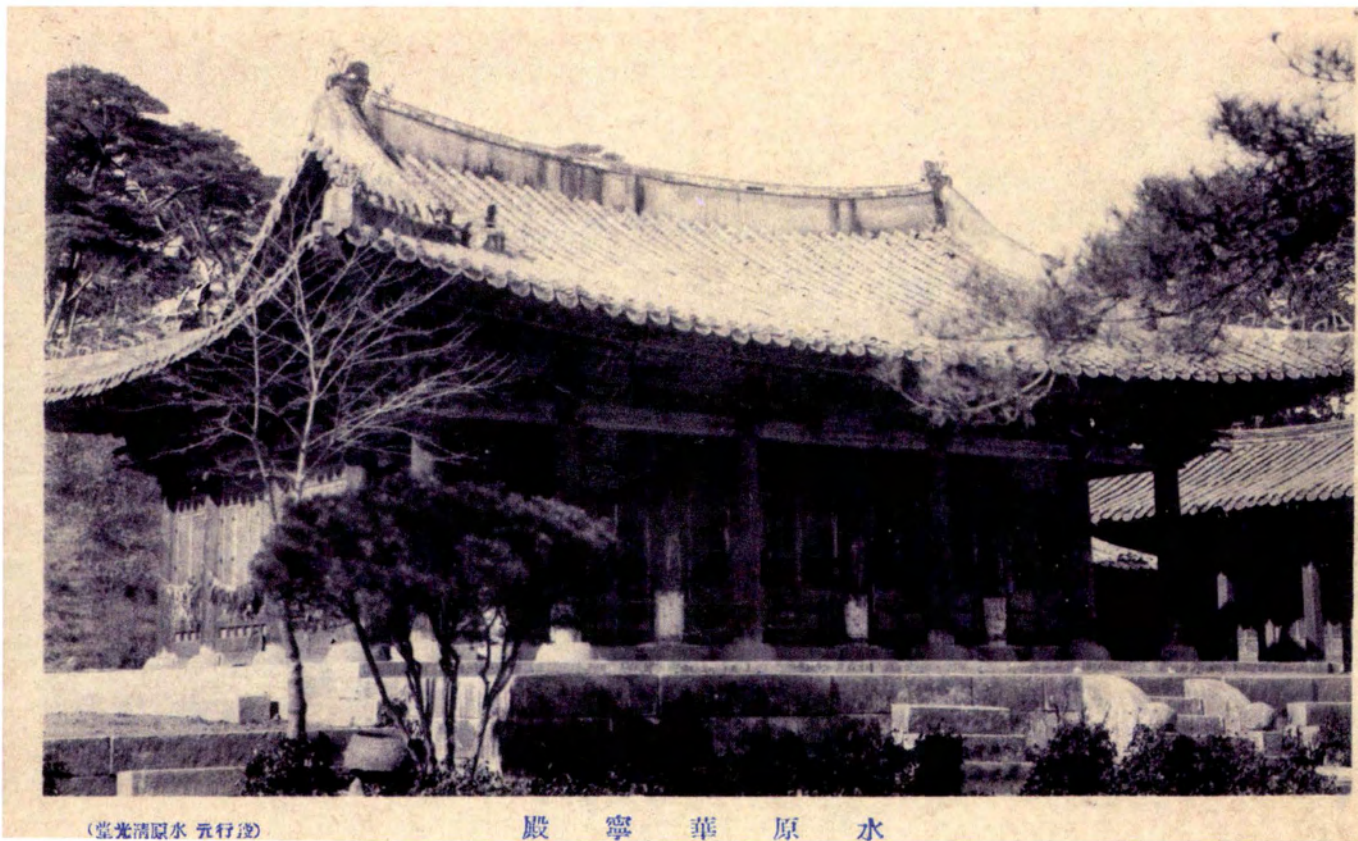


화령전





화령전



(堂光清原水 元行發)

殿 寧 華 原 水



화령전



VIEW OF ANCIENT PALACE "KWANEI-DEN" HALL, SUIGEN.
殿寧華ぶ偲を史歴しりなか華 (勝名原水)

여 백

02 화성 성곽과 주변 풍경

정조대의 대역사였던 화성의 성곽물들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의 기능을 상실한 채 대부분이 방치되면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일부는 도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성벽돌들이 건축재료 또는 하수도 자재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무너진 화성 성벽과 대홍수로 피해를 보았던 남수문 등은 도시 미관상의 이유로 고의적으로 파괴되어 훼손당했다.

하지만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일부의 화성 시설물들이 다시 중건되기도 했다. 홍수로 인해 유실되었던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은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화성은 정조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경관과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구한말 회자되어 '수원팔경'으로 그 아름다움을 여전히 뽐내며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다. 오늘날 정리되어 알려진 수원팔경은 다음과 같다.

光教積雪(흰눈 덮인 광교산의 장관)

北池賞蓮(연꽃 곱게 피어난 북지)

華虹觀漲(장쾌한 물보라가 넘쳐나오는 화홍문)

龍池待月(방화수류정 옆 용연에서의 달맞이)

南堤長柳(남제의 긴 버드나무 숲길)

八達晴嵐(안개에 감싸여 신비로운 팔달산)

西湖落照(해질녘 낙조 드리운 서호)

花山杜鵑(진달래 흐드러지게 핀 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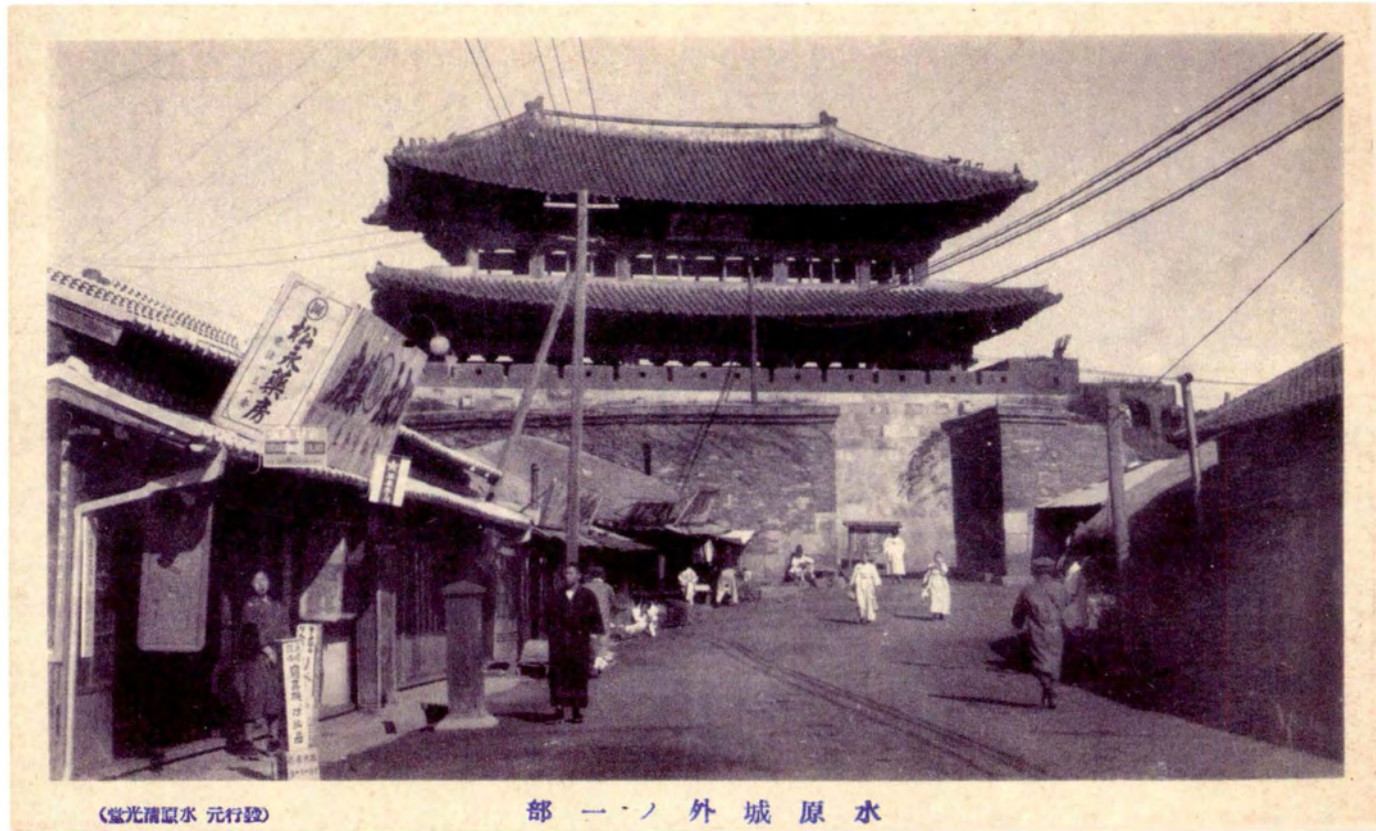
팔달문



(行靈堂光濟) (水) - THE HATTATSUMON GATE SUIGEN (門南) 門達八原水 (所名鮮朝)



팔달문



(堂光清原水 元行發)

部一ノ外城原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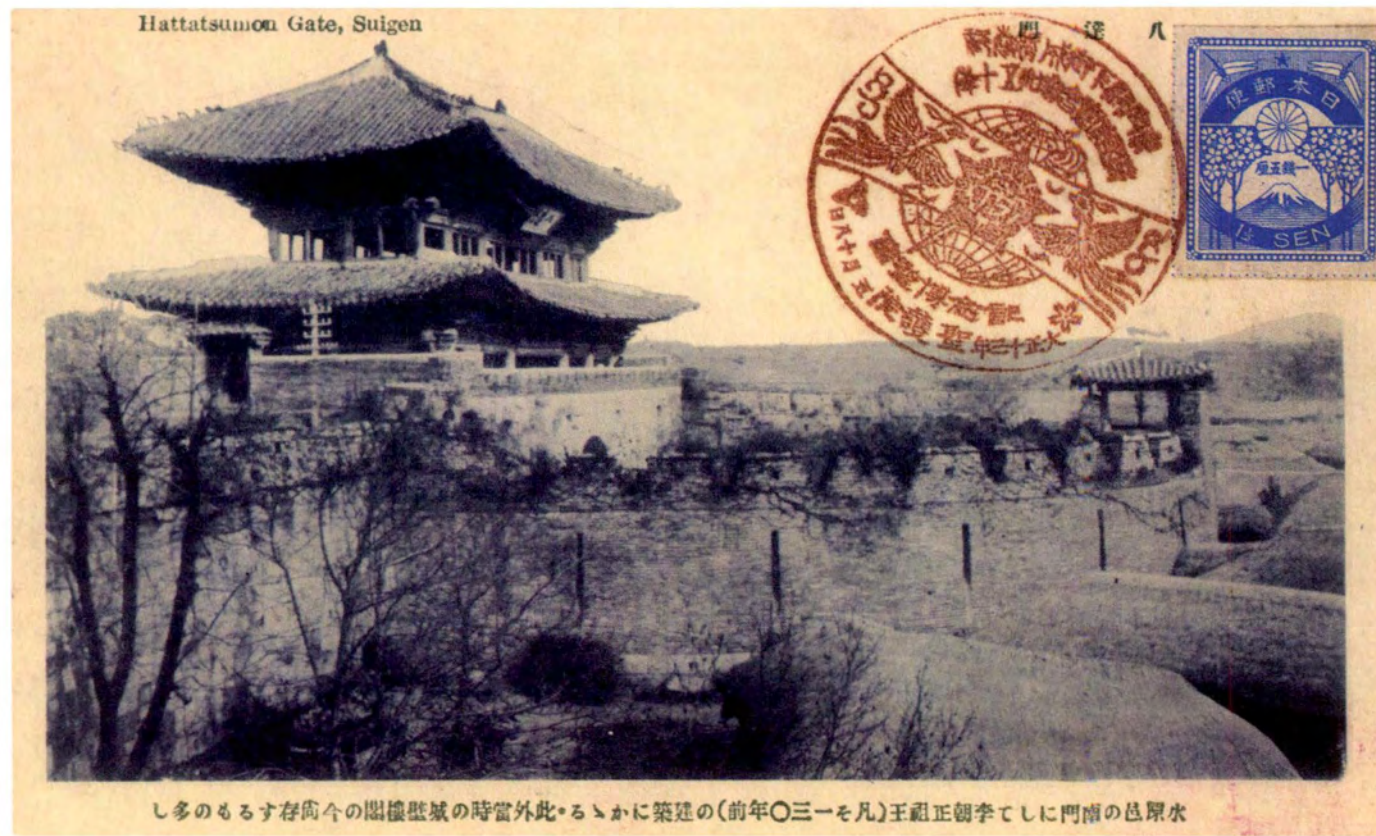


팔달문





팔달문





장안문

VIEW OF NORTHERN GATE, SUIGEN.
色古の門北る語な史歴くし淋松老 (勝名原水)





장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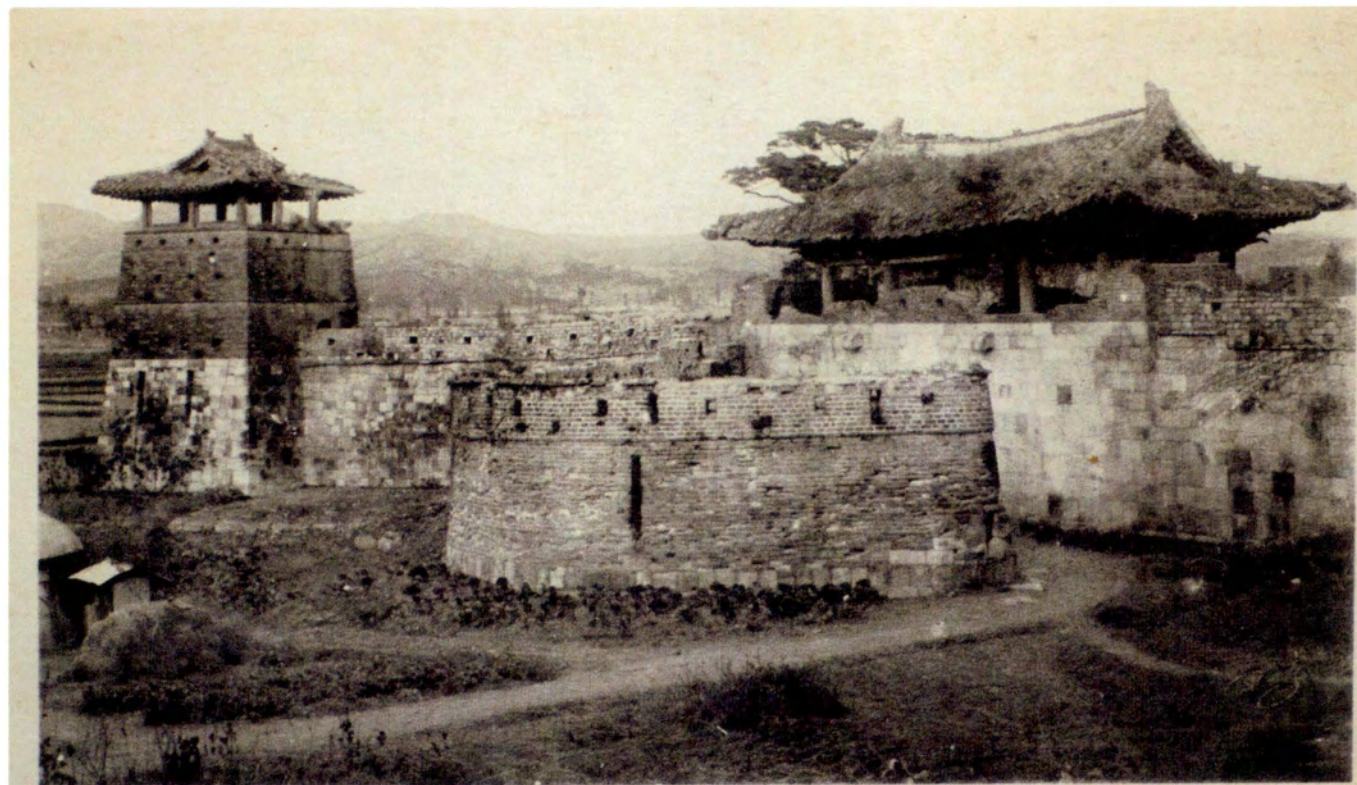
水原長安門

多々羅義雄筆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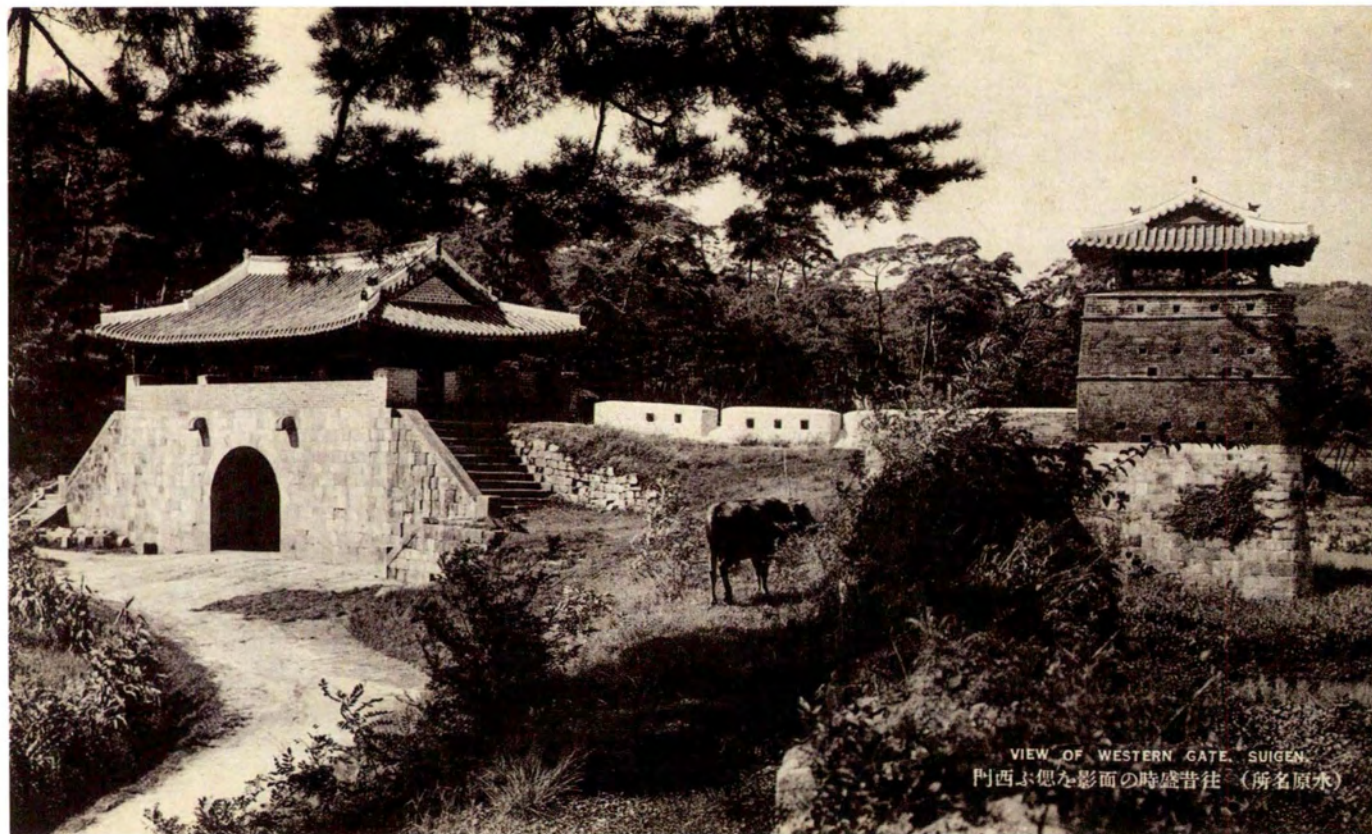


(堂光清原水 元1742)

景 全 門 西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VIEW OF WESTERN GATE, SUIGUN.
門西ふ惣を影面の時盛昔往 (所名原水)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近附臺武鍊 原 水
 作を題畫的象印に供と構建な雅典の期後明李どな壁城、門城が光風な美像
 。圖構一いし美ふ沿に壁城のそはれこ。原水るゐてつ



창룡문



(水 26)

THE TOMON. OF SUWON.

門 東 原 水

(所名鮮朝)



창룡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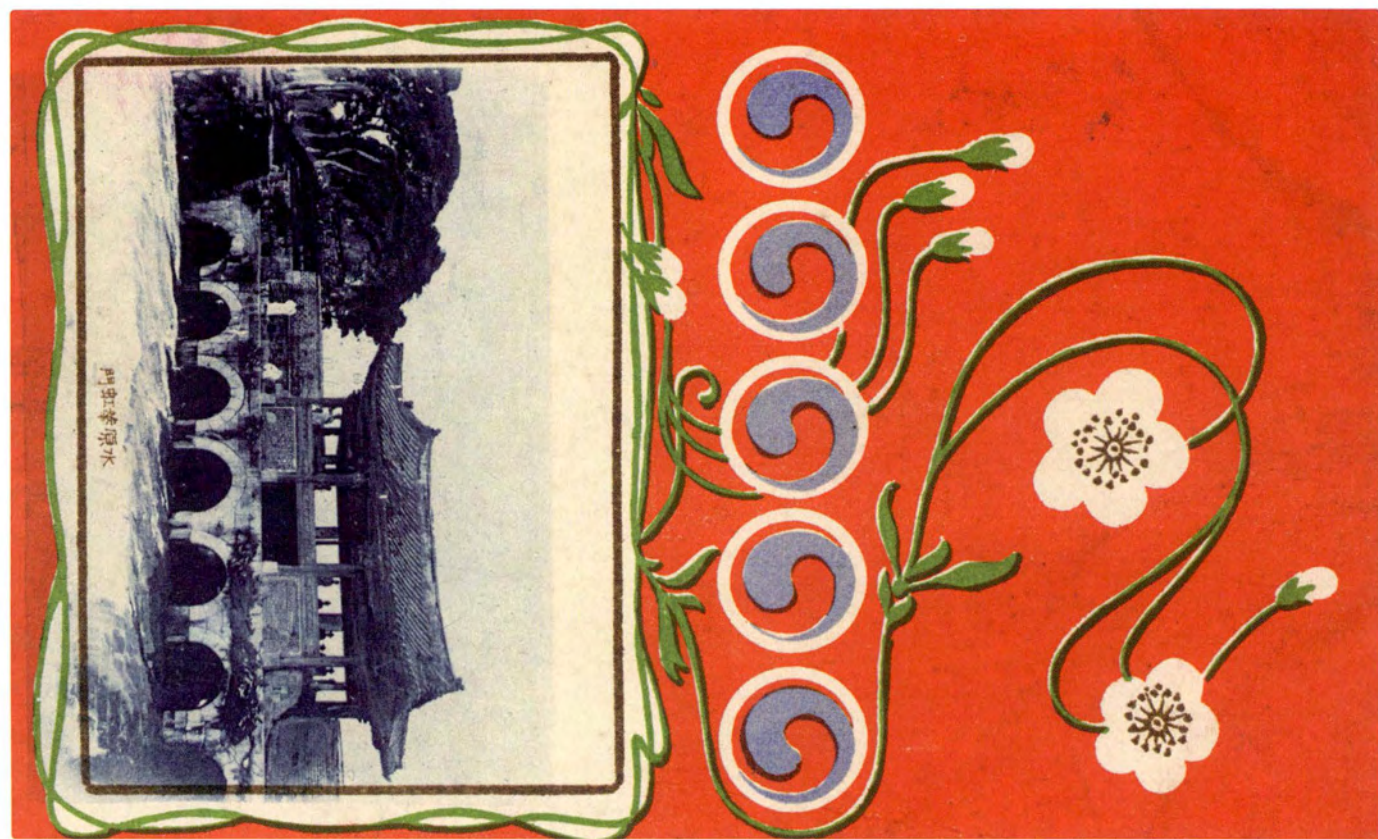


(堂光清鳳水 元行發)

景全ノ門東原水



화홍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行雲宮光澤) (水)

THE KAKOMON GATE SUIGEN

門虹華原水 (所名鮮朝)



화홍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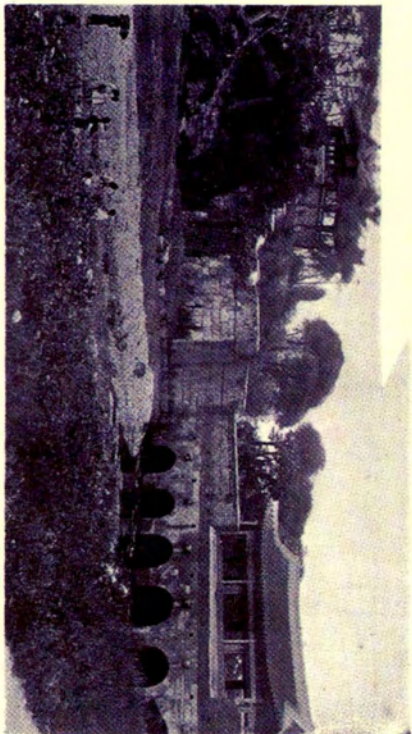
朝鮮水原 華虹門

韓ぶりの大門くぐりゆく水は
濁りて浅し石疊の上を

(人壽樹)



화흥문과 조선민요



門虹華・原水・

朝鮮民謡
娘三人蓬を摘んで
出きた出きたよ
草餅できた。
誰にやるのか
わたしや知らない。
アし云ふは恥かし
わたしや娘育ちよ。



草摘



화홍문





방화수류정과 용지



堂光濟原水 元行發

部一ノ門虹華原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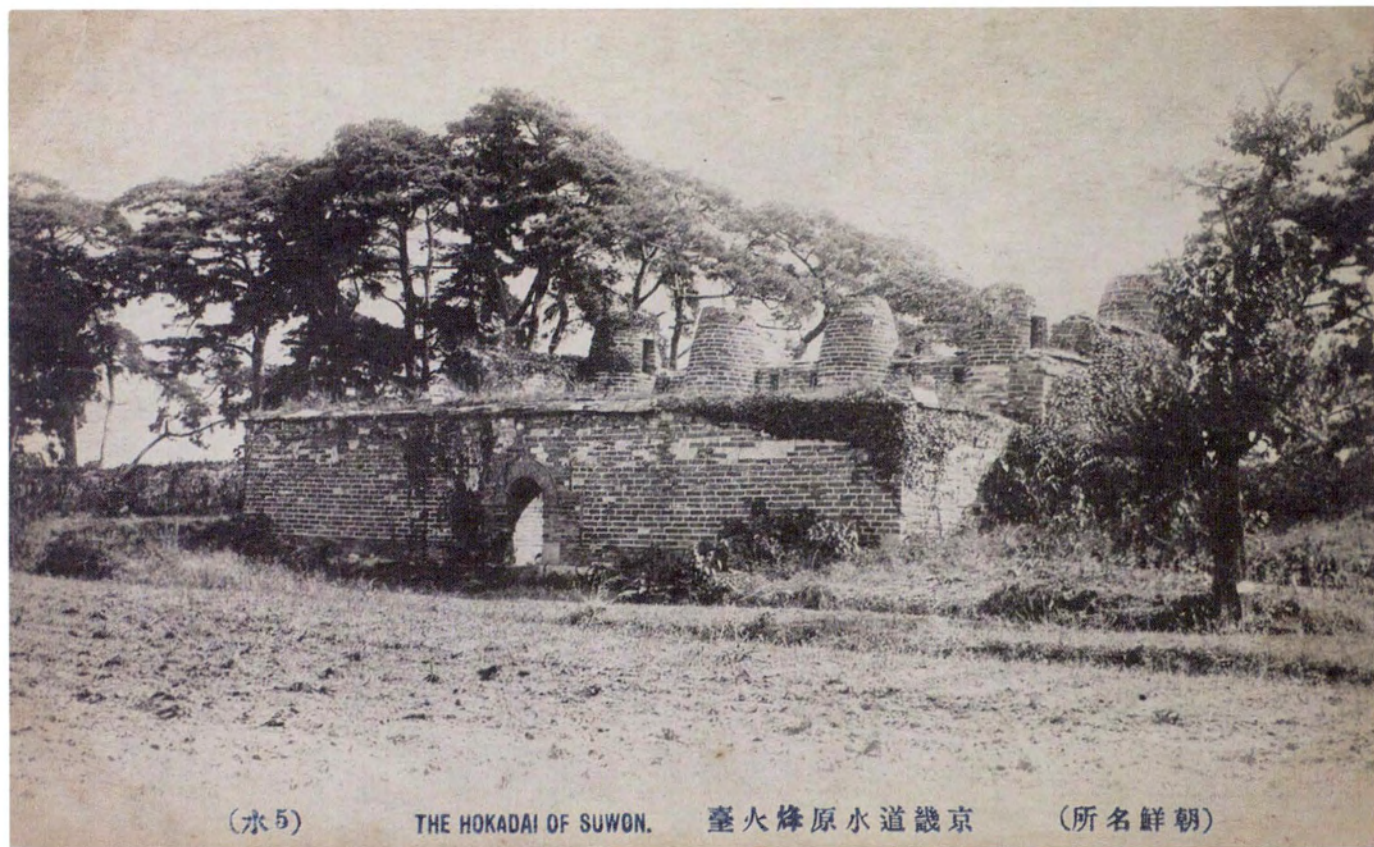
방화수류정과 용지



(行靈堂光濟) (水17) FAMOUS PLACE AT SUIGEN ム望ヲ亭柳隨華防リヨ池登龍原水 (所名鮮朝)



봉돈



(水5)

THE HOKADAI OF SUWON.

臺火烽原水道畿京

(所名鮮朝)



봉돈

VIEW OF REMAINS OF SIGNAL-FIRE STAND, SUIGEN.
台火烽ふ徳を原水しりた害要の府王古往 (勝名原水)





봉돈



(水原名所) View of Suigen
往古王府の要害たりし烽火臺



항미정과 축만제 (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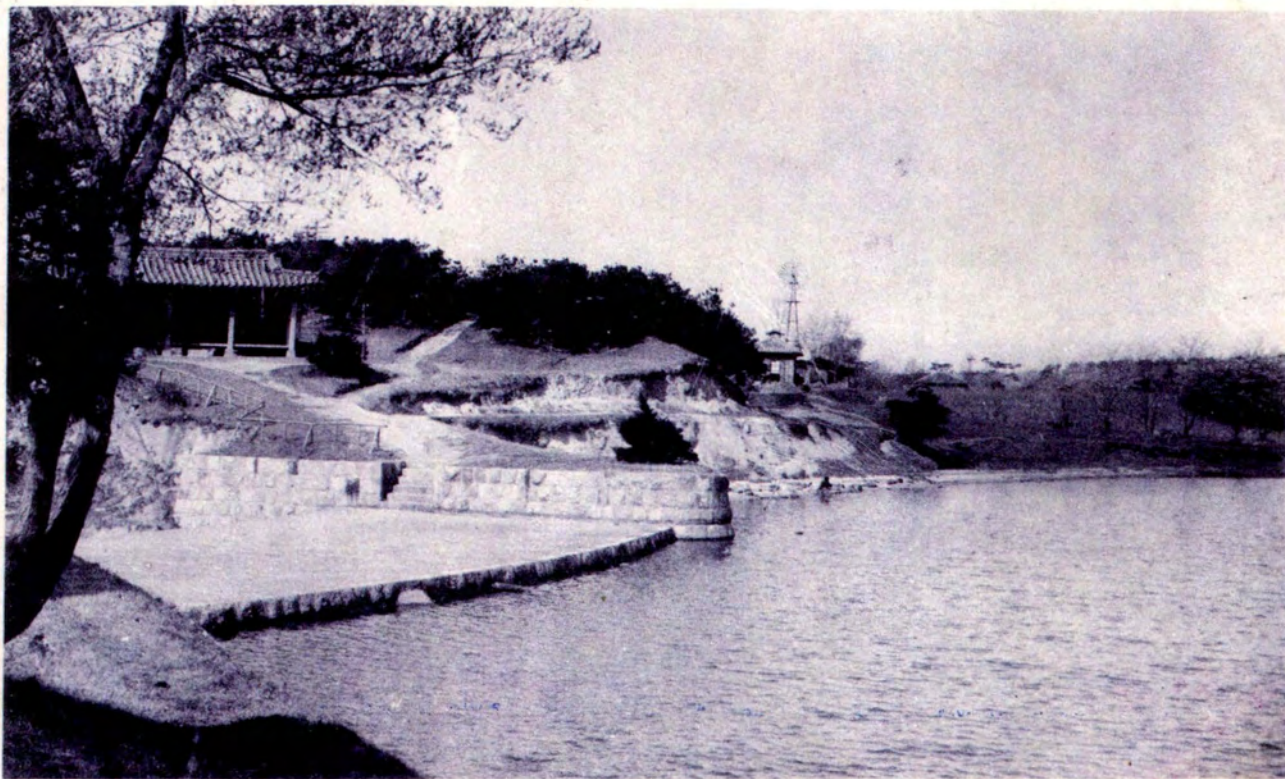
(行發館武高茂加)

WESTER LAKE OF SUIGEN-JO, KOREA.

湖西城原水國韓



항미정과 축만제(서호)



(行雲堂光濟) (永14)

FAMOUS PLACE AT SUIGEN

亭眉杭原水 (所名鮮朝)



축만제 (서호)



(堂光清原水 元行發)

部 一 ノ 湖 西



항미정과 축만제(서호)의 급류



(水14)

THE WATER-FALL AT SUWON,

瀧觀之亭眉杭原水

(所名鮮朝)



항미정



(177)

Suigen Kobitei.

亭眉抗原水 (景風國韓)



축만제(서호)의 급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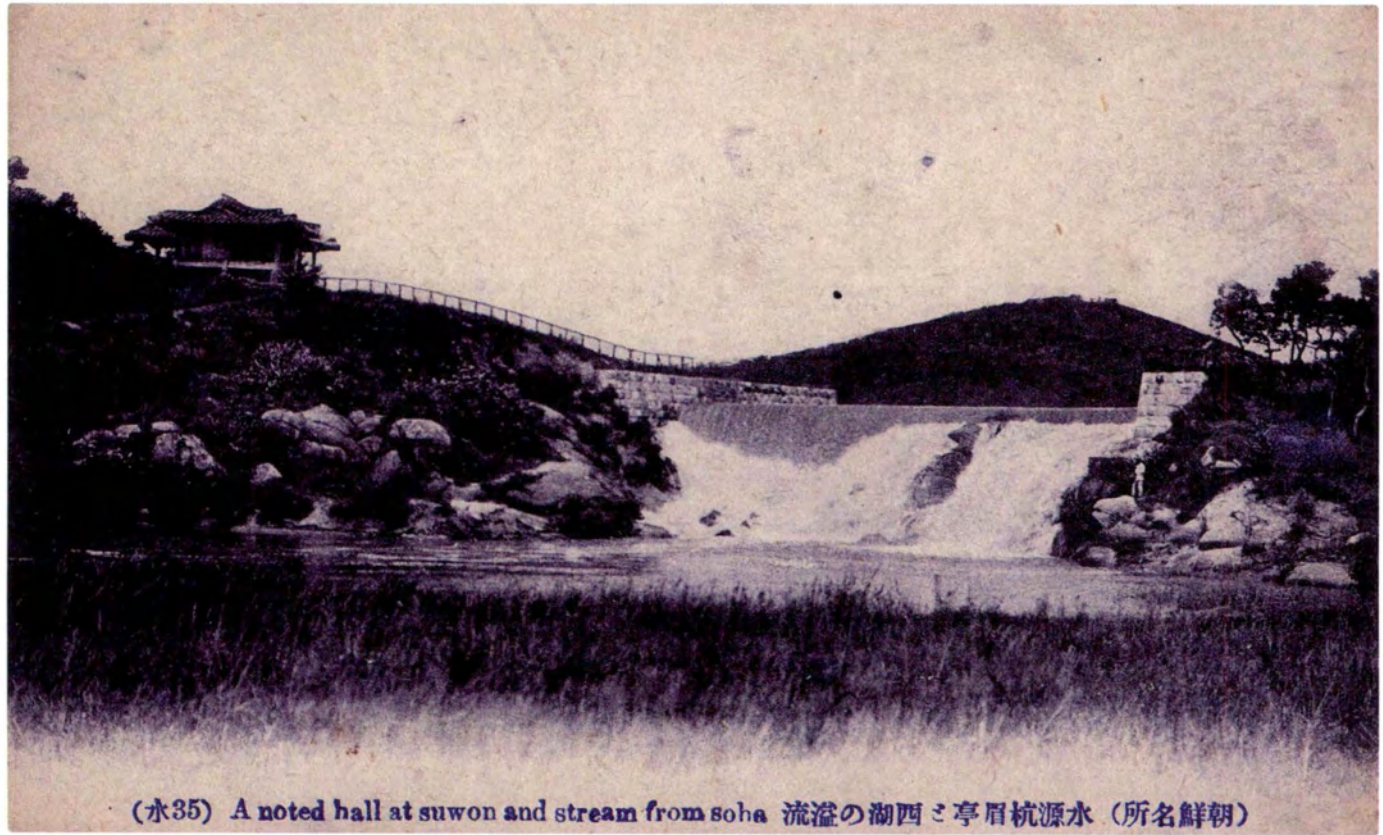


(臺光瀟原水 元行驛)

部 一 ノ 瀧 範 模 原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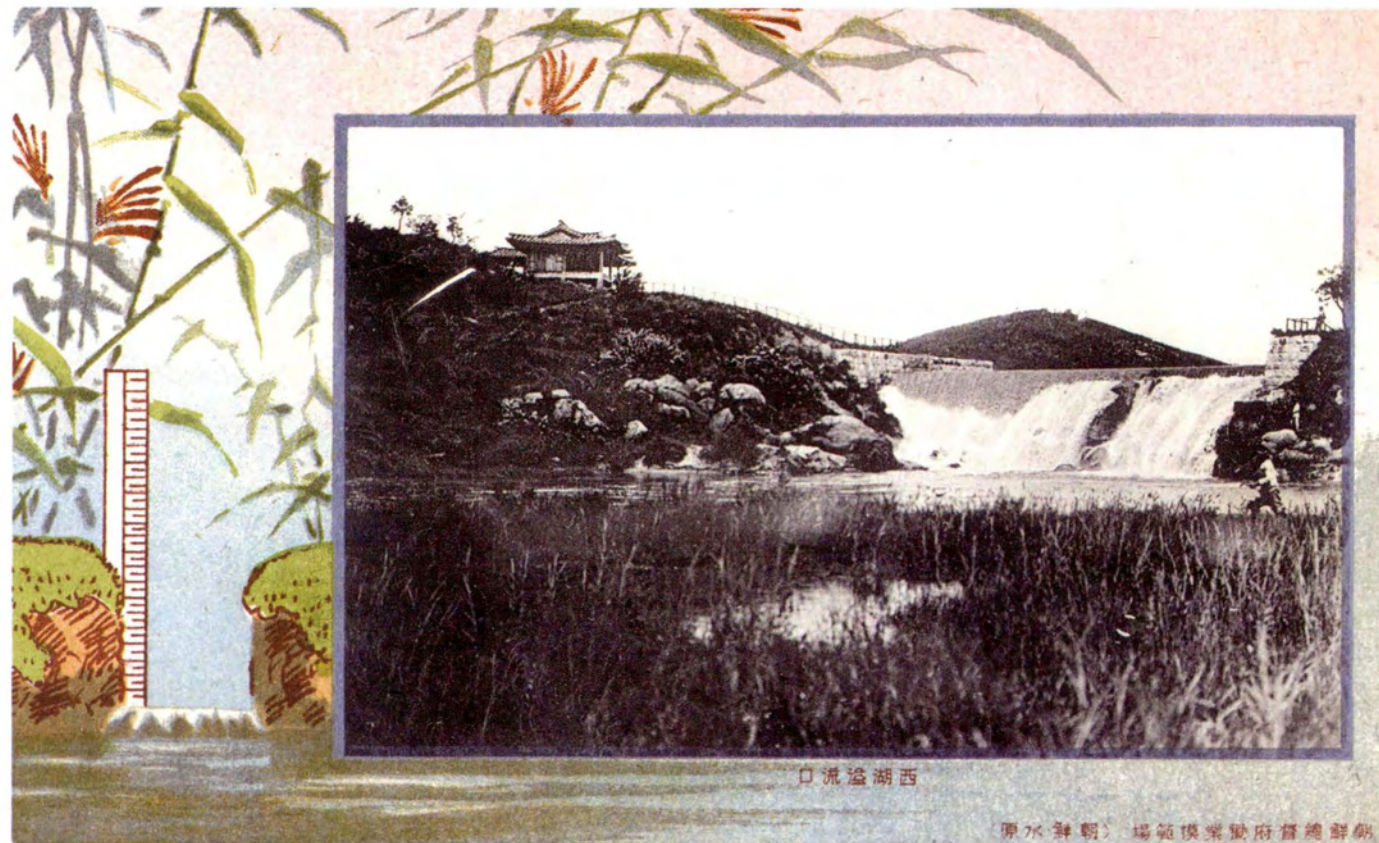
항미정과 축만제(서호)의 넘쳐 흐르는 물



(水35) A noted hall at suwon and stream from soha 流溢の湖西と亭眉杭源水 (所名鮮朝)



항미정과 축만제(서호)의 넘쳐 흐르는 물





축만제(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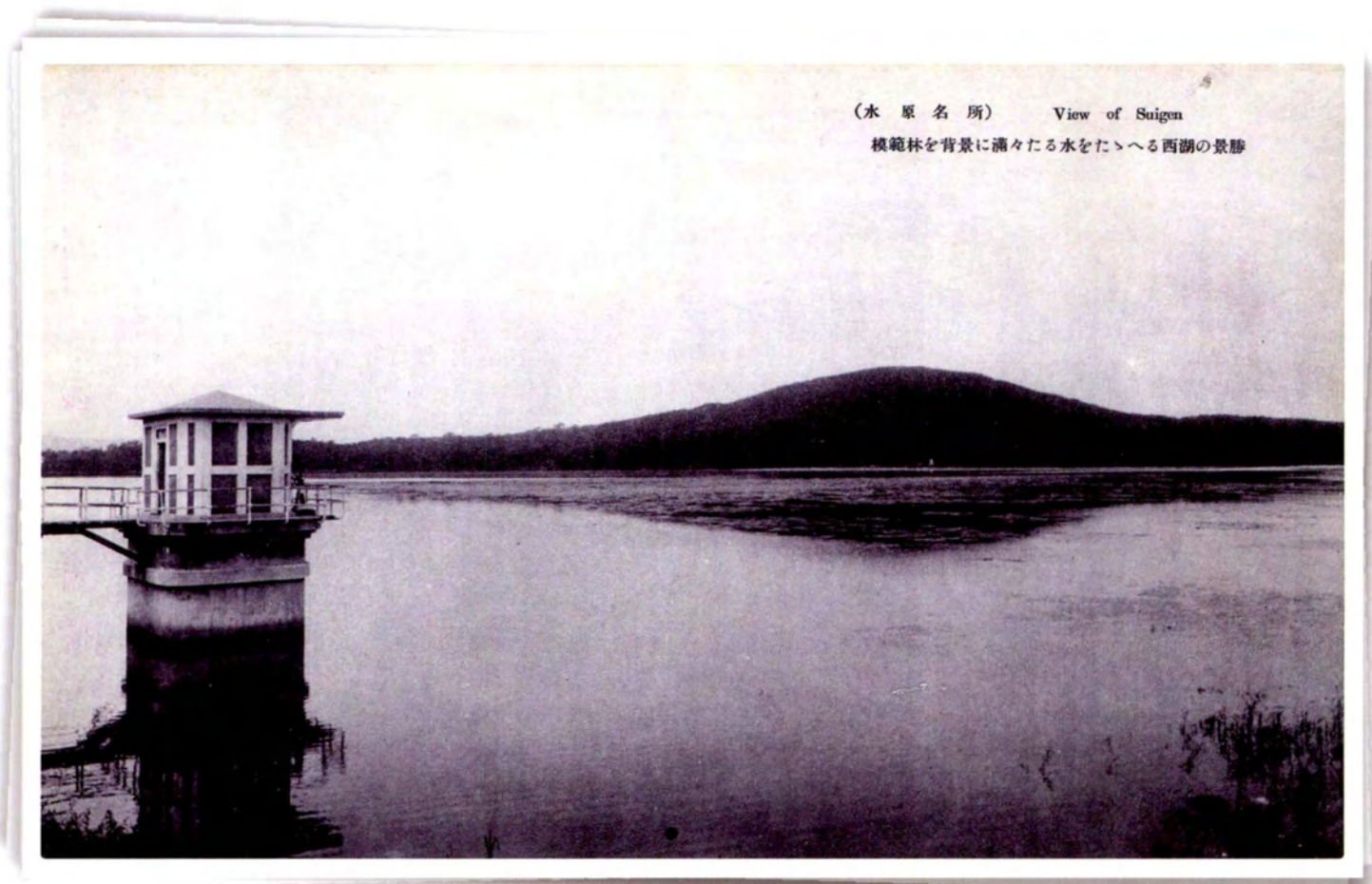
*Famous buildings and noted
places at Suizen, Iyosin.*

規、てい堰を水に堤長すら滴を縁のそ松の縁邊
四の畔湖。湖西い高名すなを佳の景風、と大の樓
つひ味に實、情風の花、情風の月、く深き趣は季
——(昔今の原水)——

てれ流風涼



축만제(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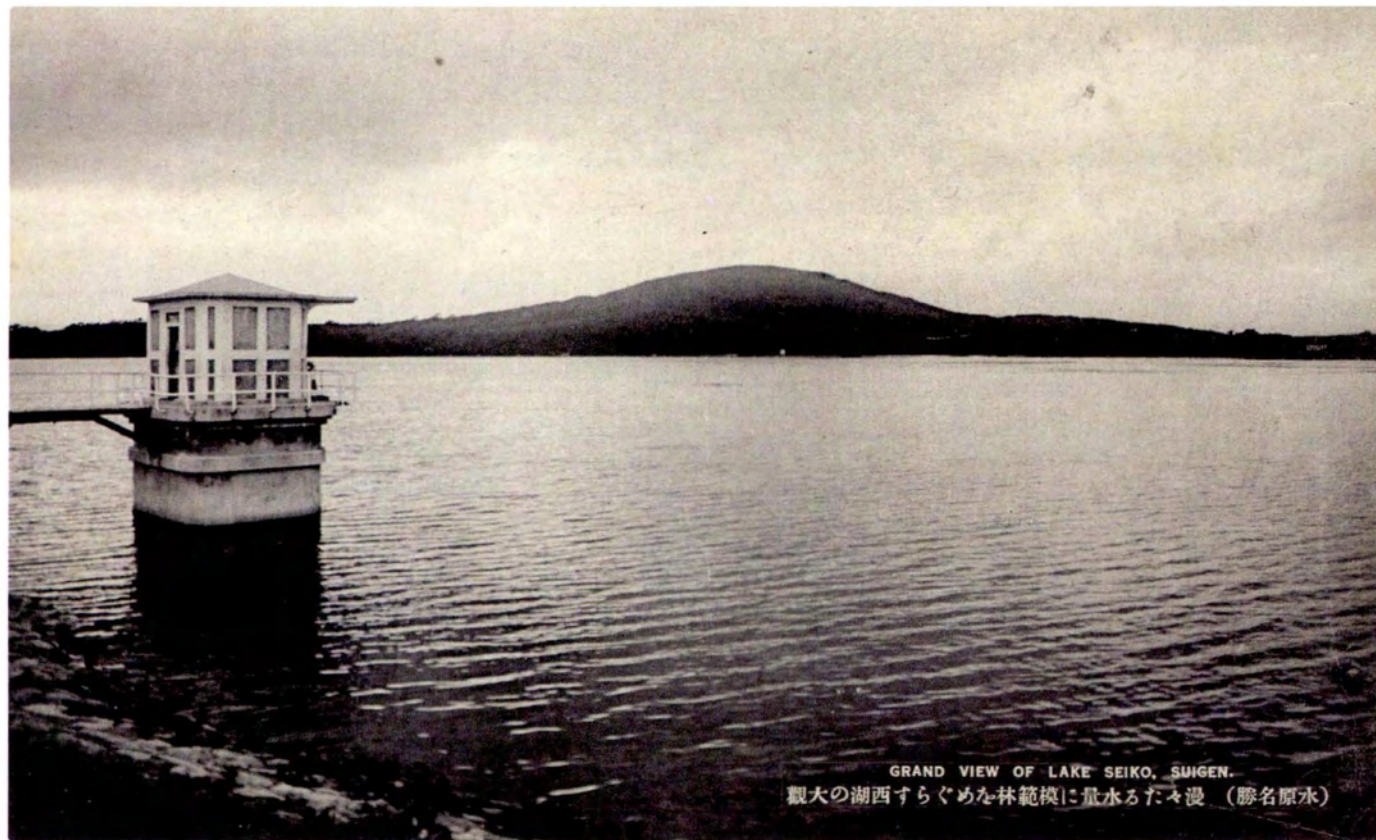


축만제(서호)





축만제(서호)



GRAND VIEW OF LAKE SEIKO, SUIGEN.
觀大の湖西すらぐめを林範模に量水るた々漫 (勝名原永)

03 권업모범장

수원은 정조대 이래로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되고 농업진흥책이 실시되어 선진적 영농의 중심지이자 전국적 모범이 되었던 곳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식민지 농업정책 기구인 권업모범장(본장)을 1906년 6월 수원군 축만제(서호) 옆에 세웠다.

일본 농법을 실험하여 강제적 이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한일병합후 조선총독부 소속이 되어 식민지 농업정책의 중요한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곡물 종자를 강제로 바꾸며,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농업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권업모범장의 주요사업을 보면, 산업의 발달개량에 필요한 조사와 시험, 물산의 조사와 산업상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 및 감정, 그리고 종자(種子)·종묘(種苗)·잠종(蠶種)·종금(種禽)·종축(種畜)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와 강의 등이었다.

권업모범장은 1910~20년대 식민농정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나갔다. 그러다가 권업모범장을 실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총독부 당국자나 권업모범장 내부에서 제기되어 1929년 9월 '농사시험장'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권업모범장은 일제강점기 식민농정을 실천하는 핵심기관으로서 기능했다. 처음엔 식민농정의 전위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음으로는 식민농정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갔다.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의 실천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 모두를 수행해 나갔던 대표적인 식민기구였다.





권업모범장



(堂光清源水 元行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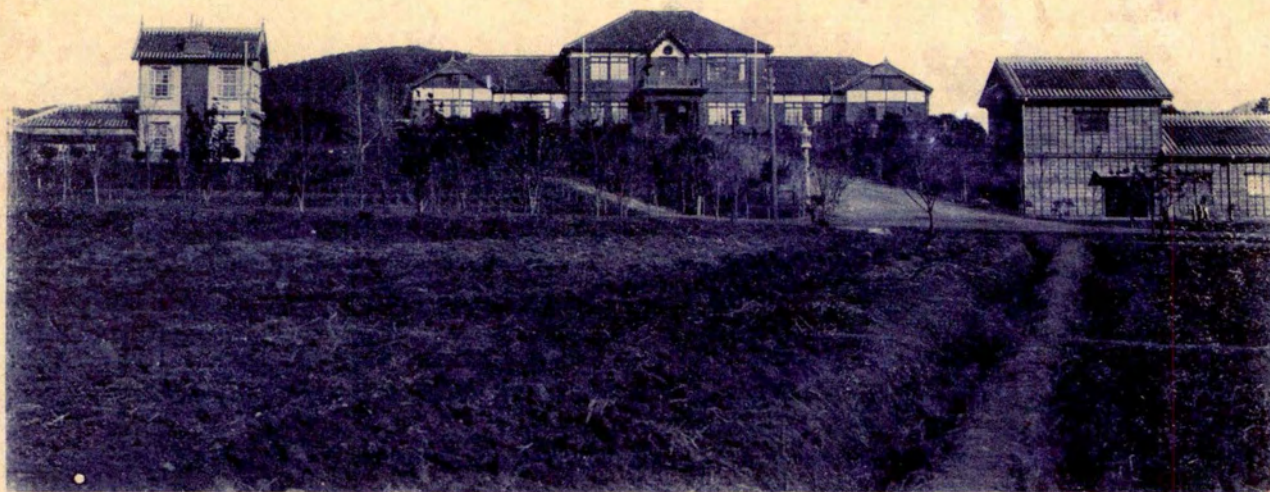
場 範 模 業 勸



권업모범장

Government Model Farm at Sui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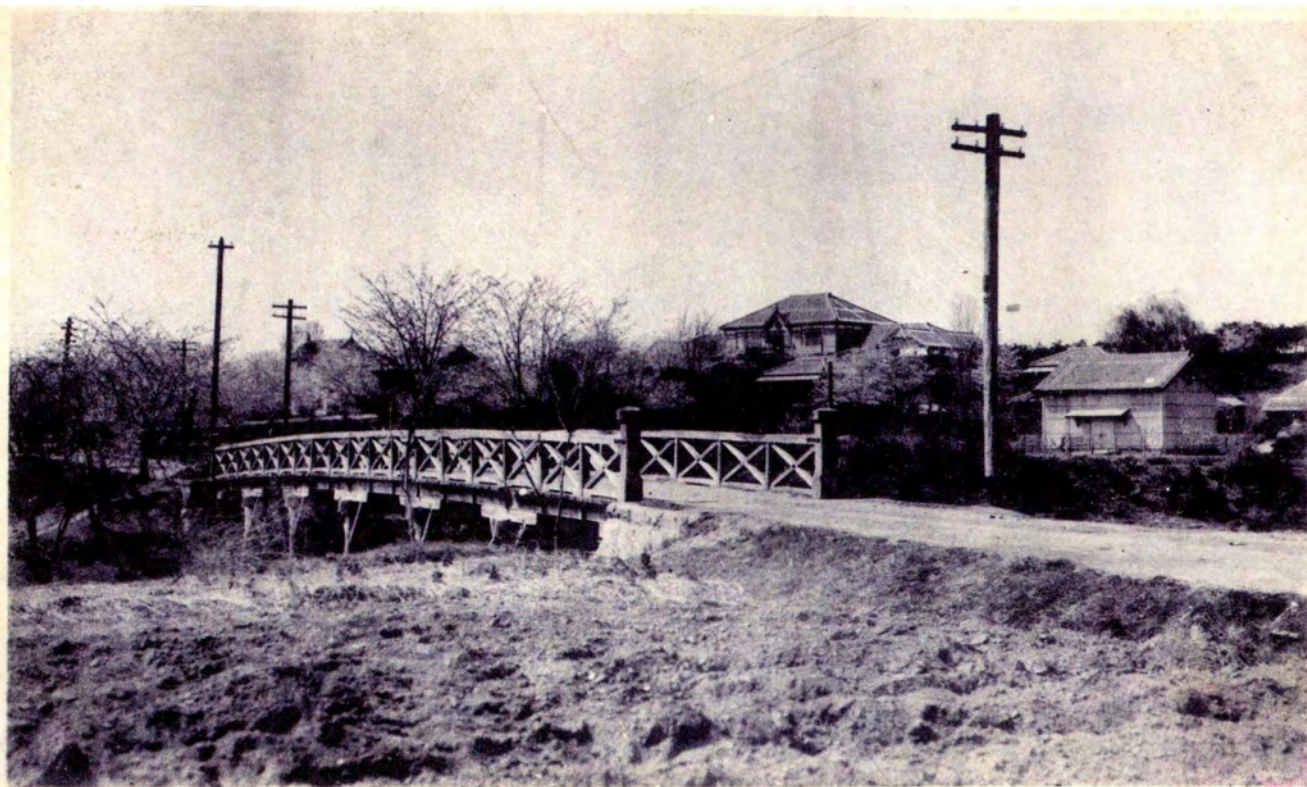
場範模業動原水



りれ園を達發良改の産農 .け設を一各所習講・所驗試・所張出・五場支に地各内鮮 .き置を場本に原水



권업모범장



(行發雲光濟)

(水18)

FAMOUS PLACE AT KOREA

場範模業勸府督統朝鮮

(所名鮮朝)



농사시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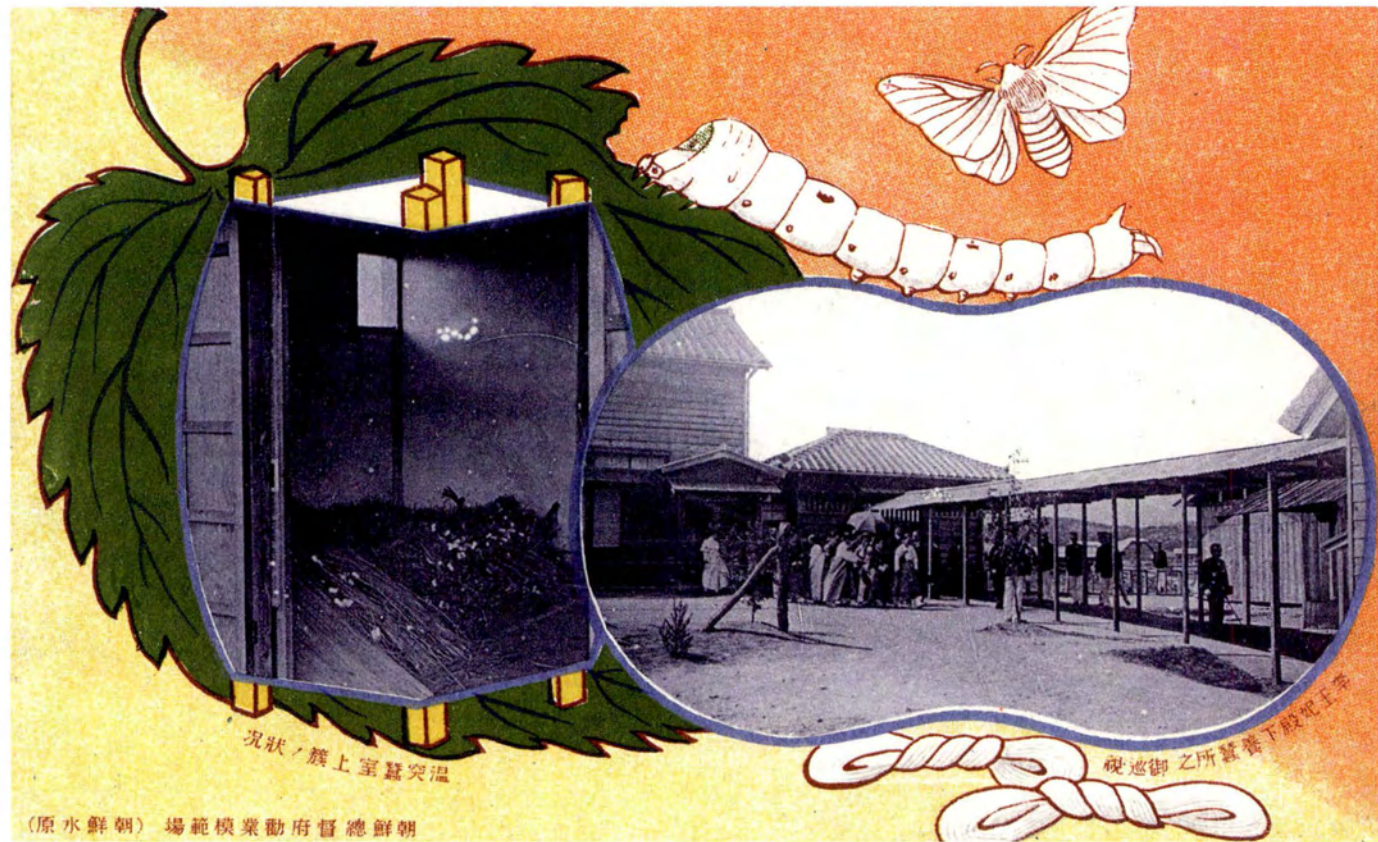


농사시험장 잠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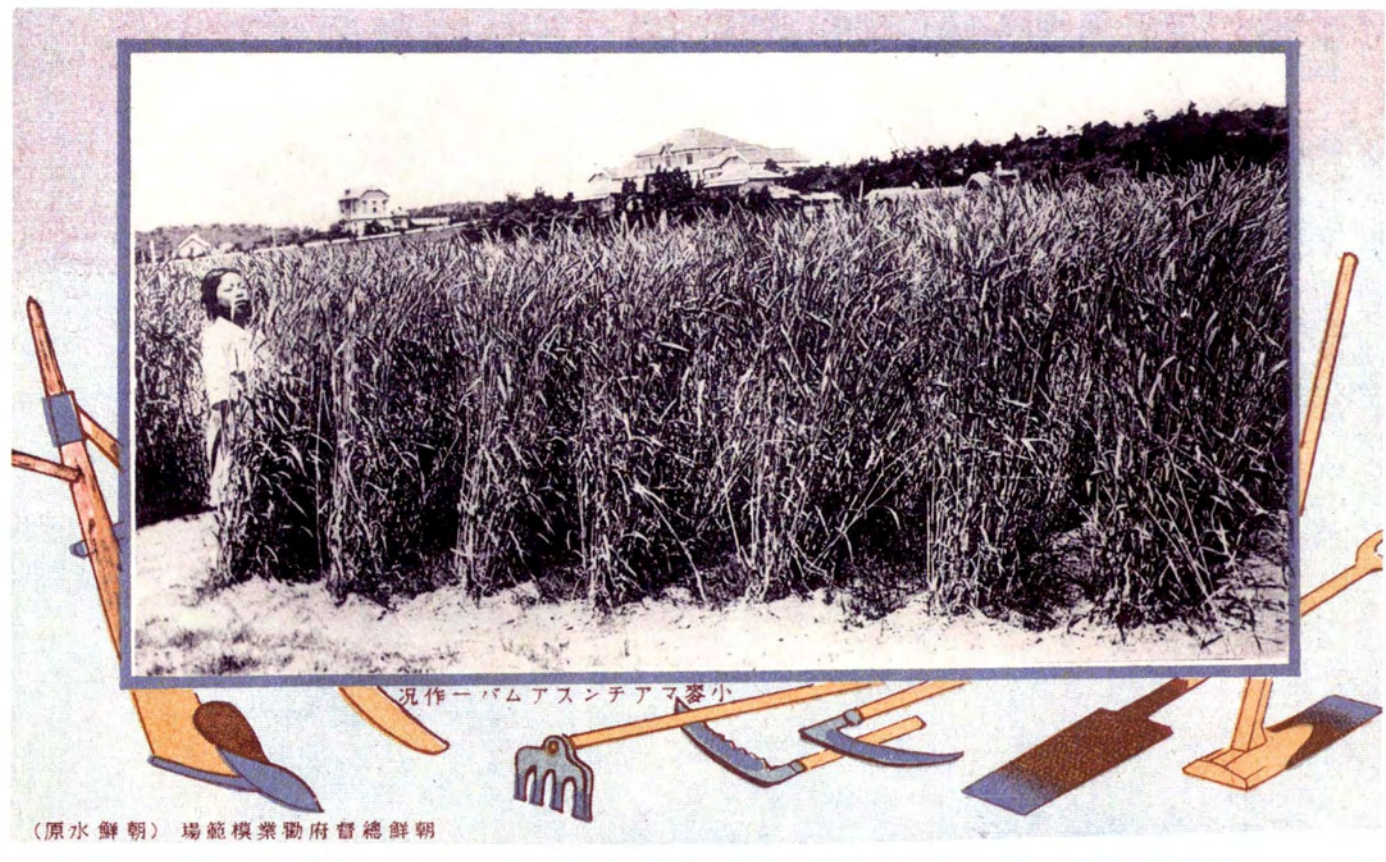


순정효황후(순종비)의 권업모범장 양잠소 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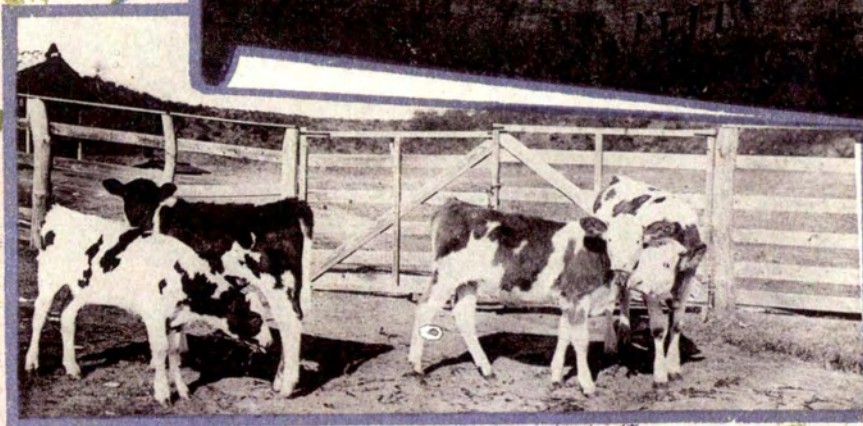


권업모범장 보리(소맥) 재배





권업모범장 송아지 방목



牧放牛犢

(原水鮮朝) 場範模業勸府督總鮮朝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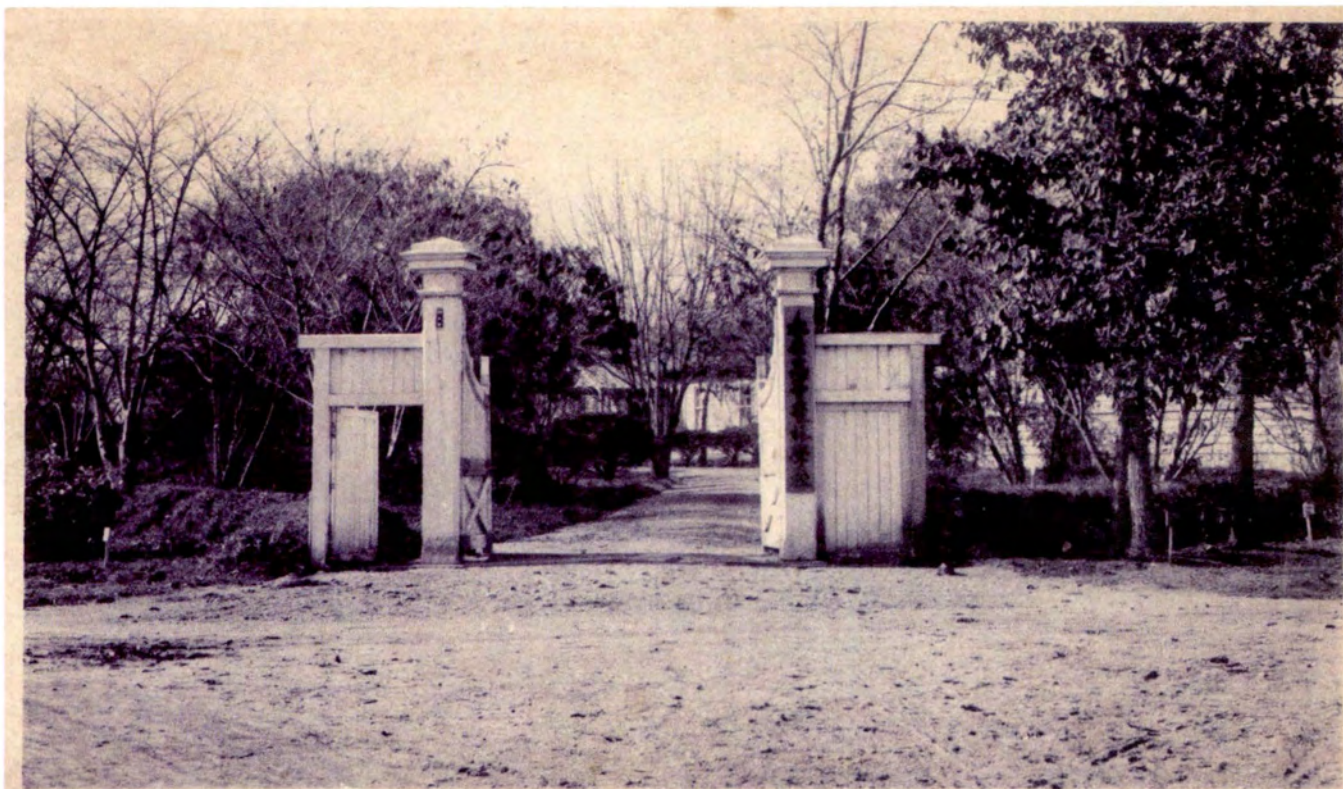
04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06년 9월 농상공학교를 각각 분리함과 동시에 교명을 농림학교라 개칭하면서 농상공학교의 농과생과 경성학당 농업속성과 학생을 수용하여 임학속성과 학생을 모집하면서 서울에서 개교하였다. 이후 1907년 수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08년 1월에는 당연직 교장이 농무국장에서 권업모범장으로 바뀌었고, 1910년 10월에는 관제개정에 의하여 교명이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바뀌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 설치되었다. 그러다가 1918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개정>에 의하여 수원농림 전문학교가 되었다. 192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가 공포되어 이때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이 선별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와 관리들이 거의 일본인으로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차별대우의 철폐와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1920년대 여러차례 수십여명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식민지하에서 차별받던 민족적 울분의 표출이었다. 또한 우리의 학생들은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우리말과 국사와 전통을 공부하여 항일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독서회(한글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농민봉기를 전개하여 민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고, 우리의 학생들은 비밀결사운동을 1930년대까지 이어져 나갔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원고농사건'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하지만 우리 청년학생들의 조국 독립에 대한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



(堂光清源水 元行發)

校學林農等高原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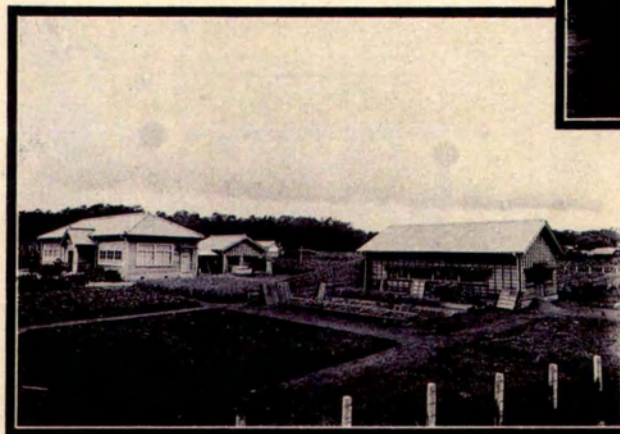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화학 실험 모습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 실업보습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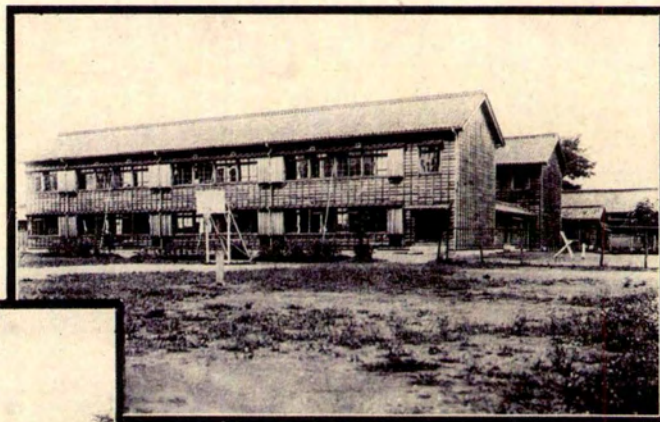
昭和四年十二月新築

【本校附實業補習學校】



수원고등농림학교 기숙사

舊寮は温突式にして現在三棟あり、六一八寮に分たる。生徒數約四十五名を收容す



新寮

新寮は一―五室に分たれ
收容生徒數約二二〇名



舊寮

【寮宿寄】



수원고등농림학교 실험실



室驗實學化

兩實驗室は何れも
大正十年四月の建築にかゝ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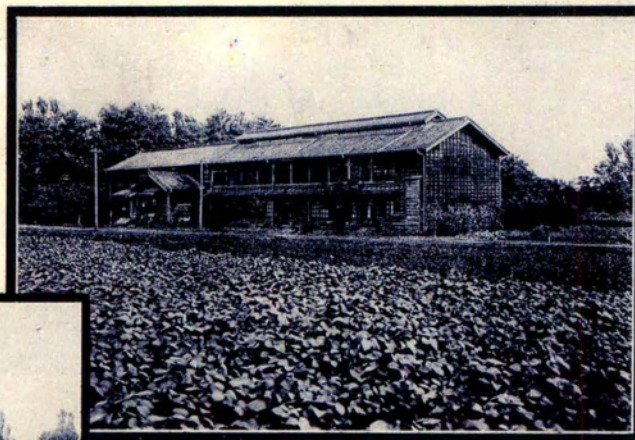
【室 驗 實】

室驗實物植動



수원고등농림학교 양잠실과 작업실

農場作業室は
大正十三年の建築



室蠶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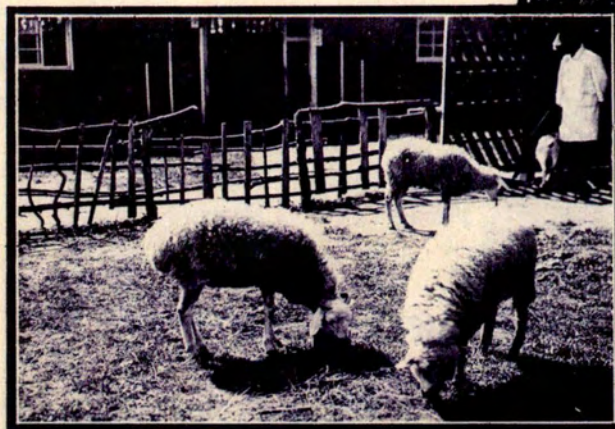
場蜂養及室業作農

養蠶室は農林専門學校
時代 大正十年の建築

【室業作と室蠶養】



수원고등농림학교 축사



舍 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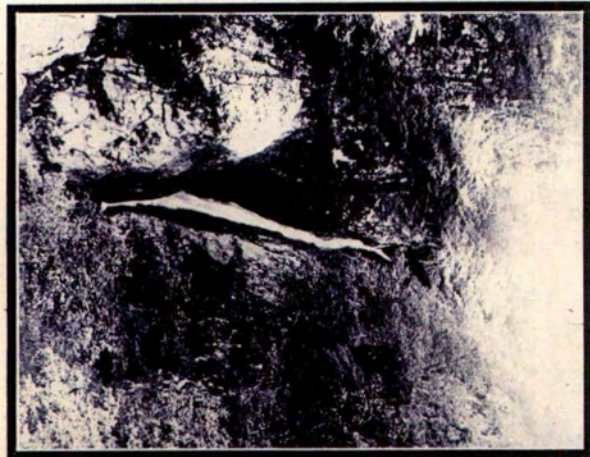
【舍 畜】



舍豚と舍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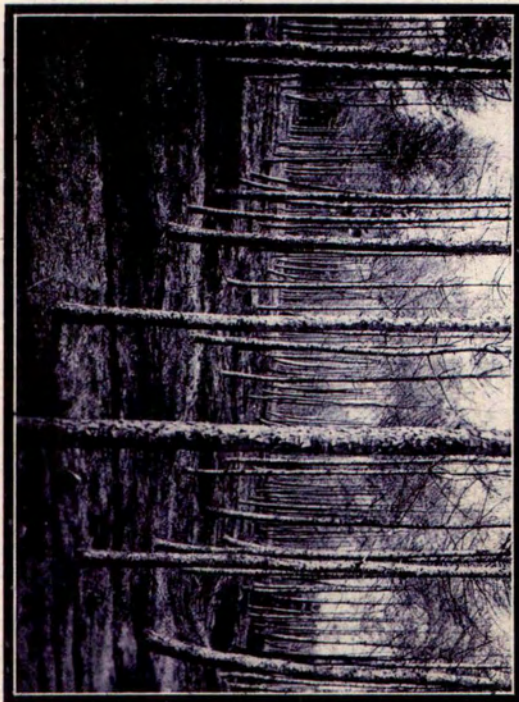


수원연습림



威風灘(全北·威風山演習林內)

演習林總面積
 京陵・水原演習林 五七〇〇〇ㄱㄱㄱㄱㄱ
 全・七寶山演習林 五四四〇〇ㄱㄱㄱㄱㄱ
 全北・威風山演習林 二六七九〇〇ㄱㄱㄱㄱㄱ



(林習演京陵・威・京) 林松葉落
 【林習演】

여 백

05 수원시가 풍경 및 기타

경기도의 중심지였던 수원은 전통적인 성곽도시로써 화성이 축조된 이후 팔달산 아래의 신읍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성안을 구획하는 도로는 전통적인 도시구획 방법에 따라 십자형 도로가 개설되었다. 십자형 도로는 수원읍의 핵심적 교통로로, 하나는 북문인 장안문에서 남문인 팔달문을 가로질러 천안으로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문인 화서문 부근에서 동문인 창룡문을 거쳐 광주에 이르는 것이었다. 읍치는 십자로가 교차하는 종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시가 형성과 상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로변에 상가를 조성하여 경성과 팔도의 부호를 유치하여 장시를 개설토록 했다. 이 때문에 '팔부자 거리'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들은 주로 종로 사거리와 장안문을 잇는 대로변에 상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팔달문 성내외로 시장이 형성되며 상업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팔달문 성내시장은 일제강점기 북수리의 우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일본인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10년대 이후 수원군에는 8백여호 3천여명의 일본인이 거주하였다.

1930년 이후에는 3천여명을 넘어서며 3천4백여명의 일본인이 수원군에 거주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거주지와 화성내외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살았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본인 시가지가 형성된 곳은 오늘날 매산로이다. 성내에 사는 일본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곳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형성하여 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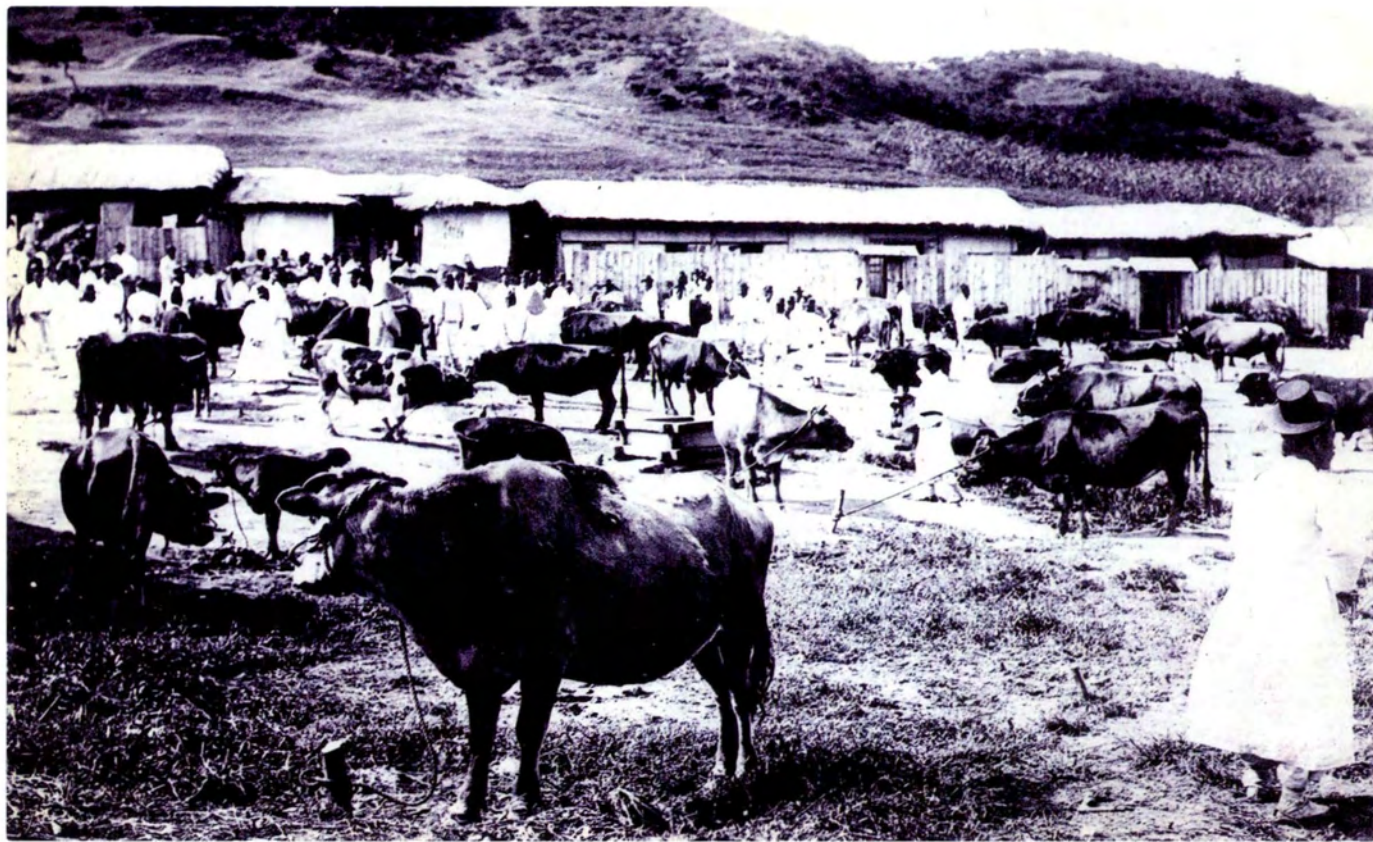
일본인이 급증하자 일본인 거주지에는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 조성되었다. 일본인들은 1905년 일본인회를 설립하고, 이후 학교조합으로 개편하여 1906년 9월에 '수원거류민립소학교'를 설치하여 10월 8일 7명의 학생으로 개교식을 가졌다. 이후 1907년 폭발적인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수원역과 가까운 팔달산 남쪽에 1908년 1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수원지역 일본인 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원거류민립소학교는 1910년 5월 수원학교조합 설립 '수원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2년 4월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다. 일본인 소학교 위쪽의 팔달산 등턱에는 1917년 '수원신사'가 설치됨으로써 일본인소학교와 수원신사는 일본인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구심으로 작용하였고, 일본인소학교, 수원역, 권업모범장 등을 중심으로 한 팔달산 서쪽은 완전한 일본인들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일제는 대륙침략의 목표아래 철도건설을 추진하였는데, 1903년 경부선 철도의 수원구간이 개설되어 공사용 열차가 운행되었고, 1905년에 경부선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경부선의 처음 노선은 지지대와 화령전, 팔달산을 훼손하여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수원지역민들의 반발과 노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훼손하지 않고 오늘날 지지대와 팔달산 밖으로 노선이 만들어 졌다. 이후 1928년 수원역사가 전통한옥구조로 새롭게 지어지면서 일제는 식민지 수혜를 강조하며 수원역사를 선전하였고, 1931년에는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여선과 1937년에는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의 협궤열차 노선을 개통하였다. 이렇듯 식민지 경영에 의하여 수원의 도시 모습은 변화되어 갔고, 그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 또한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변화되어 가며 새로운 근대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성안 우시장





성안광경



(堂光瀟原水 元行發)

景全內城原水



음릉 * 엽서속의 설명에는 정종대왕(건릉)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行雲堂元濤) (水15) FAMOUS PLACE AT SUIGEN 陵ノ王太宗正山華原水(所名鮮朝)



용주사



水12)

A FAMOUS TEMPLE AT SUWON

寺珠龍山華原水

(所名鮮朝)



지지대비



(行發部書葉繪田原)

臺々遲原水

(所名原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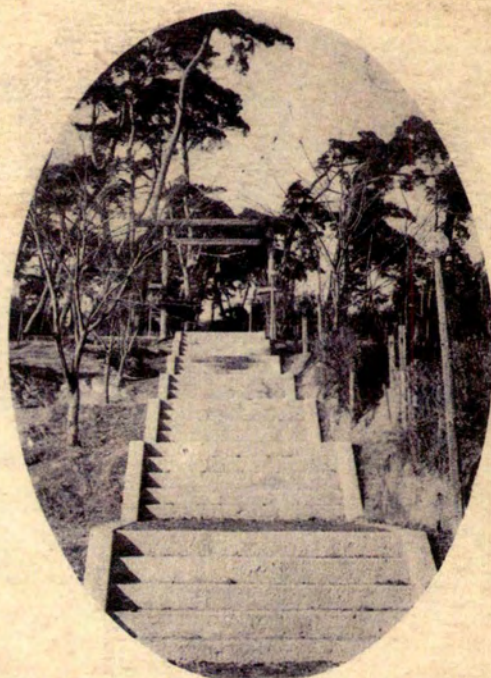


수원신사



水原神社本殿

(原田繪葉書部發行)



水原神社正面階段

(水原名所)



수원역사



한 동 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01_사진엽서, 말을 걸어오다

지난 2003년 사진엽서를 비롯하여 역사 자료 2만여 점을 사운 이종학 선생 사후 수원시에 무료 기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사진엽서 7,000점은 주목할 만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진엽서의 대표적 소장처로는 부산근대박물관 4,000여 점, 인천광역시립박물관 300여 점 및 기타 개인들의 소장품이 있다. 이에 비해 사운 이종학 기증 사진엽서 7,000장의 존재는 개인 컬렉션으로 그 규모와 내용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이는 사진엽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때 사운 이종학 선생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내 고서점이나 일본에 갈 적마다 사 모은 것들이다. 엽서라는 것은 대개 편지의 대용으로 간편하게 활용되었던 통신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엽서가 사진이라는 지극히 근대적인 발명품과 만나 ‘그림엽서’ 혹은 ‘사진엽서’라는 형태를 띠면서 엽서는 단순한 실용의 의미를 넘어서게 되었다. 사진엽서는 엽서와 사진으로 당대의 시각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혹은 당시의 현장을 담고 있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진엽서를 ‘그때는 그랬었지’라는 단순한 호기심에 불과한 관심 이외에 별반 커다란 관심과 시선을 주지 않았다. 사진엽서는 기존의 기록, 또는 정상적인 사진 혹은 사진첩보다 진실성과 적확성에서 떨어지는 단순한 시각자료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박물관 분관인 부산근대역사관에서는 특별기획전으로 <사진엽서로 떠

나는 근대기행>전을 지난 2003년 11월 25일부터 2004년 2월말까지 개최함으로써 엽서, 특히 사진엽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즉 사진엽서 속에 담겨진 100년 전 우리 삶의 모습뿐 만 아니라 이러한 사진엽서들이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었는가에 대한 재조명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엽서 4,000여 점을 분류·정리하여 학술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¹⁾ 이는 사진엽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시를 함으로써 깊이 감춰진 사진엽서를 역사 속으로 다시 불러낸 셈이다. 이를 이어 서울시립대박물관에서도 제8회 특별전 <엽서로 보는 근대이야기>를 2003년 12월 ~2004년 6월말까지 전시를 가짐으로써 엽서를 통한 근대 파악의 새로운 조류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는 대한제국기에 우리나라에 처음 출현한 이래, 일제강점기 동안 활용되었던 사진엽서를 통해 ‘근대’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19세기말에 처음 유럽에서 엽서가 사용되었을 때는 단순히 편지를 대신하는 간편한 우편수단에 불과하였지만 사진 등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엽서는 수집과 교환의 대상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더욱이 사진엽서는 단순히 개인의 통신수단뿐만이 아니라 공공적인 시각 이미지로 유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엽서 속에 담긴 이미지는 주로 제국주의라는 세계적 현상과 도시의 성장, 산

1) 부산근대역사관, 『사진엽서로 떠나는 근대기행』, 한글그래픽스, 2003. 11.

업의 발전이라는 근대적 현상을 재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진엽서는 19세기말에 출현해서 20세기 초까지 근대시각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물(Cultural Artifacts)이다. 특히 100여 년 전 우리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근대의 생생한 기록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02_엽서의 출현과 유통

근대의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사진이다. 사진의 매력적인 역할과 기능은 예술작품의 복제수단으로서 기능이다. 부유한 소수의 작품 소장가들의 고립된 감상자들로부터 예술작품이 해방된 것은 사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즉 예술작품이 수백만 부로 복제되면서 일반대중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는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1851년 감광도가 높은 유제를 사용한 콜로디온 습판의 발견과 1860년 양화(陽畵) 사진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탄화질 인화지의 발명은 예술작품의 복제를 조직적이고 대량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프랑스의 아돌프 브라운(Adolphe Braun, 1811~1877)은 1867년경 그의 사업장에 100명이 넘는 고용인을 두고 있을 정도로 복제기술은 산업적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브라운은 저장들과 소장 화가들의 작품을 촬영하여 50만장의 원판을 모을 정도였다.

더욱이 1880년 취화은과 젤라틴의 혼합물로 처리한 사진판과 사진요판인쇄술이나 잉크 바르기와 인쇄공정이 완전 기계화된 윤전식 사진요판인쇄술(寫眞凹版印刷術, rotogravure)이 나오으로써 매시간 2000매 인쇄가 가능해지자 복제에 바탕을 둔 거대한 산업이 유럽 전체와 미국에서 호경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사진 복제술로부터 직접 유래된 또 다른 산업이 바로 그림엽서이다. 이 업종은

1865년 독일에서 우정상이 공식 우편엽서의 사용을 제안함으로써 제정 공포된 법률로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비슷한 법률이 1872년 프랑스에서도 공포되었다. 그러나 그림엽서의 황금시대는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까지 그림엽서 값이 비쌌는데 복제방법으로 드라이-포인트, 뷔랭 판화(le burin, 끝이 사변형의 단면으로 된 끝[뷔랭]을 사용한 음각동판화 기법) 및 석판 인쇄술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콜로타입 인쇄술(photocollographie- 헬리오타입·사진석판술·포토타입이 있다)의 발명과 함께 그림엽서는 대중적인 사업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풍경사진을 담은 관광용 그림엽서는 폭발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미 1900년경 그림엽서의 생산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럽 여러나라의 그림엽서 생산량

나 라	인 구(만명)	그림엽서 판매량(만장)
독 일	5,000	8,800
영 국	3,850	1,400
벨기에	650	1,200
프랑스	3,800	800

1910년 프랑스에서는 인쇄된 그림엽서는 1억2,300만장에 달하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3만3천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산업이다. 특히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관광산업은 그림엽서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림엽서에 대한 열광은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

즉 그림엽서를 고르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예술가와 자신을 다소간 동일시한다. 여행하고 있는 장소의 풍경을 보여주는 엽서를 보낸다는 것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인이자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엽서는 여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와 시간적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또한 엽서는 사사로온 내용을 쓸 수 있으며,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내는 사람은 익명성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자신을 공표하는데서 오는 일종의 자기노출 심리가 작동될 수 있다. 엽서의 성공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하는 추억을 싼값으로 살 수 있으며, 동시에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과시욕과 편지보다 쉽게 쓸 수 있다는 편리함과 게으름, 그리고 사람들의 수집벽에 기대고 있다. 사실 그림엽서는 그것이 나타났을 때부터 수집 대상이 되었다. 1900년경 프랑스에만 엽서 수집 전문잡지가 30종이 넘었다. 점점 확대되어 가는 관광이 그림엽서의 번창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광고는 처음 나올 때부터 엽서를 지배했다.²⁾

03_근대 사진엽서 유통과 수원 엽서

사진엽서가 우리나라에 출현한 대한제국기 이래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활용되었던 일제강점기 사진엽서는 ‘근대’를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사진엽서는 거의 일본인들이 운영하였던 대정사진공예소(大正寫眞工藝所)와 히노데(日之出商會)가 양분하고 있었다. 1910년대 초반 이미 히노데의 경우 사진엽서를 수천 종을 제작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대한제국기인 1907년에 한국출판협회(韓國出版協會)에서 [韓國繪葉書] 제1집(6매 1조)~제5집, [朝鮮6大要港](6매 1조), [韓國繪葉書 京城名所] 제1집(4매 1조)~제2집, [韓國繪葉書 韓國美人] 제1집(4매 1조)~제2집, [韓國郵票繪葉書](2매 1조), [韓國風景風俗繪葉書] 수백 종, [韓國風俗寫眞帖] 제1집~제2집, [韓國名所寫眞帖] 제1집~제2집을 이미 발간하고

있어 발 빠른 일본의 상업적 진출을 확인할 수 있다.

실상 사진엽서의 전성기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0년대라 할 수 있다. 1930년대는 일제의 대륙침략기로 식민지 조선에서는 새로운 소비풍조가 만연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1920년대의 혁명적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1930년대 쾌락과 소비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몇몇 대도시의 풍경은 화려하고 흥청거리는 불빛의 휘황함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한국의 근대가 식민지화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근대화가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매개로 도입되고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의 양상에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성격과 지향을 부여하였고, 이후 전개된 근대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동일한 문화권이지만 근대 서구문물의 수입에서 앞섰던 일본은 수입이 간발의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못 견뎠다. 따라서 일본-조선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조선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모습이었다. 이는 조선 강점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자 동시에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일본의 근대적 슬로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한말 이래 폭력적으로 의병전쟁을 진압하고 한일병합을 감행한 이래 일본의 위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무단통치기를 지나 1919년 3.1운동 이래 분할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정치를 표방했다.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새로운 식민지 만주의 획득에서 오는 ‘만주특수’로 대변되는 경제적 호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제 당국의 자신감이 반영되는 정책이 진행되고 조선은 주어진 근대의 휘황함에 잠 못 들었던 것이니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의 창경원 밤 벚꽃놀이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갔던 셈이다. 이에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는 조선 관광을 상품으로 내놓고 선전하게 되는 시절이 오고 그 연장선상에 관광을 복돋는 상품으로 사진엽

2) 지젤 프로인트(Gisele Freund), 성완경 역, 『사진과 사회』, 눈빛, 1998.

서는 불티나는 장사가 될 수 있었다.

수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엽서는 우선 화성(華城)과 관련한 고적(古蹟)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화성의 화성행궁, 화령전, 화성의 4대문,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등이다. 그리고 화성과 연관된 유적들- 서호와 향미정, 용주사, 용릉, 지지대비 등을 꼽을 수 있다. 화성 이외의 사진엽서는 일제의 입김이 작용한 시설물들- 수원신사, 권업모범장, 고등농림학교, 수원역 등이다.

이는 수원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서 화성의 아름다움과 일제 식민통치에 따라 발전된 수원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대한제국기 발행 수원 사진엽서

(1) 통감부 철도관리국 인쇄소 발행 '화홍문(華虹門)' 사진엽서

통감부 철도관리국 인쇄소에서 발행한 화홍문 엽서(31p)가 있다.

앞면 水原華虹門 / 뒷면 CARTE POSTALE 統監府鐵道管理局印刷所石印

앞면에는 화사한 주황색 바탕에 이화(梨花)와 태극(太極)문양을 담은 칼라엽서에 액자처럼 사진을 배치하였고, 뒷면에는 엽서를 'CARTE POSTALE'라는 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감부 철도관리국 인쇄소 석인(石印)임을 표기하였다. 사진 속 화홍문은 화성8경 가운데 하나인 '화홍관창(華虹觀滄)'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량이 풍부한 것으로 보아 장마철에 찍은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 철도관리국은 1906년 7월 설치되었는데, 이는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06년 4월 경의선 개통에 따라 한국주재 일본군 임시 군용철도감부에서 운영하던 이들 철도 운영을 이관받기 위한 것이었다.

철도관리국 인쇄소는 1906년부터 직영되어 상당한 규모와 설비를 자랑하였다. 직공의 경우 60~150명 정도였고, 인쇄물로는 승차권, 각종 서식, 철도국 소용 인쇄물 및 통감부 발행 기념 그림엽서 등을 만들었다.³⁾ 통감부 발행 기념엽서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인쇄소의 설비와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철도국 직영 인쇄소는 1911년 3월 통감부 직속 인쇄국으로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통감부 철도관리국 인쇄소의 화홍문 사진엽서는 1906년 이후 1911년 이전의 사진엽서로 1909년 한국은행권 1원짜리 지폐 도안으로 화홍문이 등장하는 시점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가모사진관(加茂寫眞館) 발행 '서호(西湖)' 사진엽서

이종학 선생 기증 사진엽서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에 인쇄된 것으로는 가모 사진관(加茂寫眞館) 발행의 서호(西湖) 사진엽서이다.

韓國水原城 西湖 Wester Lake of suigen-jo, Korea (加茂寫眞館 發行) / 뒷면 POSTKARTE

Carte powtale- Cartolina postale- Postcard

ОТКРЫТОЕ ПИСЬМО

앞면에는 '韓國水原城 西湖 Wester Lake of suigen-jo, Korea (加茂寫眞館 發行)'이라는 글씨가 청색으로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우편엽서라는 용어가 3단으로 POSTKARTE/ Carte powtale- Cartolina postale- Postcard/ ОТКРЫТОЕ ПИСЬМО, 즉 녹색 글씨의 독일어, 불어-스페인어-영어, 러시아어 순서로 인쇄되어 있다. 특히하게 독일어와 러시아어가 영어보다 상대적으로 큰 글자로 인쇄되어 있다. 국호가 대한제국의 한국(韓國)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0년 이전

3)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99, 284쪽.

에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모사진관은 수원에서 가모 마고시로(加茂孫四朗)가 운영하였던 가모백화점(加茂百貨店)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종학 선생 기증 엽서는 아니지만 1910년 이전 찍은 수원관련 사진엽서로는 소년서회(少年書會) 발행의 화홍문 사진엽서를 들 수 있다. 화홍문 사진에 '大韓國 수원군 화홍문, 소년서회 발행'의 글씨가 써있다. 이는 독립기념관 소장 소년서회 발행 사진엽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소년서회 사진엽서는 화홍문 사진엽서를 비롯하여 서울 남석탑(원각사지 석탑)·영은문, 평양 대동문안 애련당, 성천 강선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더 많은 숫자의 사진엽서를 발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일제 강점기 수원 사진엽서

(1) 민간업자 발행의 사진엽서

가) 청광당(淸光堂) 발행 수원 사진엽서

세이코우도(淸光堂)는 수원 팔달문 안쪽 신한은행 자리쯤에 위치해 있었다. 수원을 남창리 244번지였다. 그러나 청광당은 '江口淸光堂'으로 회사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에구찌(江口) 청광당은 1933년 1월 5일 설립된 자본금 5000원 규모의 합자회사이다. 청광당은 서적·잡지·문방구 및 이과학기상(理科學器商)이었다. 1933년 설립 당시 대표자는 에구찌 모리오(江口守夫)였는데, 1935년 이후 에구찌 후미오(江口文夫)로 바뀌어 해방이 될 때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에구찌 청광당은 회사 이름과 같이 에구찌 일가가 운영한 셈이다.

에구찌의 본적은 일본 에히메현(愛媛縣)으로 청광당 회사 설립 이전부터 같은 번지(남창리 244)에서 에구찌 후미오가 어머니 이름으로 문방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⁴⁾

그리고 형으로 보이는 에구찌 모리오는 1929년 11월 실시된 제4회 협의회 선거에서 수원면 협의회원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출되었다. 에구찌 모리오는 수원지역 일본인 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인물로 조선인 유지들과도 상당한 교유가 있었다. 즉 수원의 대표적 유지였던 양성관의 아들 양규룡(梁奎龍)이 1933년 10월 27일 설립한 수원극장(水原劇場)의 전무이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1935년 수원의 중등학교 설립 기성회 상임이사 15명 가운데 한명으로 수원지역의 일본인 유지로 활동하였다.

아마도 1933년 1월 청광당을 설립할 당시 에구찌 후미오는 출판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립 당시 이름을 형 이름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31년 가을 수원읍내 봉급생활자의 소비조합이 설립되면서 일반 소매업자들의 매상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조합을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1931년 10월 17일 수원신사 제례에 즈음하여 소매업자들과 고용인 등 26명이 산루리 소비조합 사무실 창문을 파괴하였다. 이에 주동자 와타나베(渡邊重輝) 등 6명에 대하여 폭력행 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2월 28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20원에 처해졌다. 이에 이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1932년 1월 27일 재판 일자가 결정되었으나 일반인 방청금지라는 소문을 듣고 에구찌 후미오는 공개금지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운동을 목적인 문서를 인쇄하여 수원읍내 여러 사람들에게 반포하고자 하였다. 이에 1월 24일 읍내 남창리 인쇄업자 근등(近藤) 집에서 그 고용인 미즈모토(水本義信)에게 소형인쇄기를 빌려 '각자 27일 휴업하라. 수원의 흥폐는 이 일전에 있고, 방청을 금지하는 그곳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자,...' 등의 인쇄물을 여러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1932년 9월 15일 경성복심법원으로부터 벌금 20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1932년 11월 12일 상고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4) 京城覆審法院, 昭和7年 刑上 第316号, 「出版法違反事件 江口文夫 판결문」.

1932. 9. 15 : 高等法院, 昭和7年 刑上 第115号, 「出版法違反事件 江口文夫 판결문」, 1932. 11. 12.

따라서 1932년 11월 처분을 받은 이후 1933년 1월 청광당 설립 신고를 하면서 수원의 유지로 성장한 형 에구찌 모리오의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광당에서 발행된 사진엽서는 '淸光堂 發行' 과 '發行元 水原淸光堂' 으로 나뉜다. '淸光堂 發行' 의 경우에도 '朝鮮名所' 시리즈가 있다.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하게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① 淸光堂 發行

- 1-1. 水原 模範龍의 일부 (淸光堂 發行) / 뒷면 carte postale
- 1-2. 水原 東門의 全景 (淸光堂 發行)

② 淸光堂 發行 (朝鮮名所) 시리즈

- 2-1. (朝鮮名所)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淸光堂 發行) / 뒷면 carte postale
- 2-2. (朝鮮名所) 수원 신평루(현 지혜의원) FAMOUS PLACE AT SUIGEN (水9) (淸光堂 發行)
- 2-3. (朝鮮名所) 수원 화령전 FAMOUS PLACE AT SUIGEN (水10) (淸光堂 發行)
- 2-4. (朝鮮名所) 수원 향미정 FAMOUS PLACE AT SUIGEN (水14) (淸光堂 發行)
- 2-5. (朝鮮名所) 수원화산 정종대왕의 능 FAMOUS PLACE AT SUIGEN (水15) (淸光堂 發行)
- 2-6. (朝鮮名所) 수원화산 정종대왕의 능 FAMOUS PLACE AT SUIGEN 水15 (淸光堂 發行)
- 2-7. (朝鮮名所)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FAMOUS PLACE AT SUIGEN (水18) (淸光堂 發行)
- 2-8. (朝鮮名所) 수원 팔달문(南門) THE HATSUTATSMON GATE SUIGEN (水1) (淸光堂 發行)
- 2-9. (朝鮮名所) 수원 화홍문 THE KAKOMON GATE SUIGEN (水2) (淸光堂 發行)
- 2-10. (朝鮮名所) 수원 화홍문으로부터 북문을 바라보며 THE KAKOMON AND HOKUMON SUIGEN (水3) (淸光堂 發行)

③ 發行元 水原淸光堂

- 3-1. 수원고등농림학교 (發行元 水原淸光堂) / 뒷면 carte postale
- 3-2. 수원 華虹門의 一部 (發行元 水原淸光堂) / 뒷면 carte postale
- 3-3. 水原城內 全景 (發行元 水原淸光堂) / 뒷면 carte postale
- 3-4. 水原城外의 一部 (發行元 水原淸光堂) / 뒷면 carte postale
- 3-5. 수원화령전 (發行元 水原淸光堂) / 뒷면 carte postale
- 3-6. 西湖의 一部 (發行元 水原淸光堂) / 뒷면 carte postale // 석축이 새롭게 신축된 모습

기본적으로 청광당 발행의 수원 사진엽서는 사진설명 글의 인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청색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뒷면의 경우 엽서라는 표기가 시종일관 'carte postale' 라는 불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엽서의 사진을 통해 볼 때 시기적으로 청광당 발행→발행원 수원청광당 순으로 엽서가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진의 상태와 엽서의 디자인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 찍힌 사진만으로는 판별하기는 곤란하다. 즉 사진을 찍은 시점과 인쇄 발행된 시점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광당이 등록되어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은 193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2-8>(18p), <3-4>(19p) 팔달문 사진은 1929년 용성이 더욱 크게 철거되기 이전의 사진이며 <2-10> 화홍문에서 북문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은 1922년 홍수로 석축이 파괴되기 이전의 사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2-7> 권업모범장 사진엽서의 설명은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 1929년말 농사시험장(農事試驗場)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1930년대 이전 사진을 가지고 1930년대 사진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음을 알려준다.

한편 청광당 발행의 수원관련 사진엽서는 '朝鮮名所' 시리즈와 그렇지 않은 경우, '朝鮮名所' 시리즈라 하더라도 사진 설명의 영문표기에 차이가 있다. 즉 水原名所 = FAMOUS PLACE AT SUIGEN라는 단순화되어 있는 것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

확한 영문설명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인쇄된 것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朝鮮名所' 시리즈의 경우 1)영문표기가 없는 사진엽서→ 2) FAMOUS PLACE AT SUIGEN→ 3) 시설물 각각의 영문표기가 된 사진엽서 순으로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1> 권업보범장 사진엽서의 경우 영문표기가 전혀 없는 경우이지만, <2-7>는 같은 각도의 똑같은 사진으로 인쇄상태가 보다 선명하고 FAMOUS PLACE AT SUIGEN (水18)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뒤에 다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5>, <2-6>는 모두 '정종대왕의 능' 즉 건릉(健陵)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지만 사진속의 능은 장헌세자의 용릉(隆陵)이다. 또한 사진의 시리즈 번호가 '水 15'와 '水15'로 달리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사진이 인쇄시점만 달리하여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광당 발행 '朝鮮名所' 시리즈의 경우는 일본 굴지의 출판 인쇄업소인 히노데 쇼코(日之出商會)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日之出商會

히노데 상회(日之出商會)의 수원관련 엽서는 4종류가 보인다. ('朝鮮名所' 시리즈와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水原名所) 시리즈 및 시기적으로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水原名所) View of Suigen' 시리즈 그리고 조선민요를 담은 사진엽서가 그것이다.

4-1. (朝鮮名所) 水原華山龍珠寺 THE FAMOUS TEMPIE AT SUWON(水12) / 뒷면 POST CARDE

4-2. (朝鮮名所) 水原杭眉亭之觀瀧 THE WATER-FALL AT SUWON(水14)

히노데의 이름은 없으나 로고로 추정할 수 있는 바, <4-1>, <4-2>와 로고가 같은 초창기 제작으로 보인다. 또한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하라다그림엽서부(原田繪葉書部) 발행의 엽서 2매를 들 수 있다. 기존의 '朝鮮名所'에서 '水原名所'로 이름을 바꾸면서 수원을 강조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4-1> 화산 용주사(龍珠寺) 사진엽서(77p)는 '朝鮮名所'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히노데(日之出商會)의 초기작으로 추정된다. 히노데의 '해뜨는 형상'의 상표는 몇 번에 걸쳐 단순화되는 형태로 바뀌는데 '朝鮮名所' 시리즈의 용주사 사진엽서는 초창기 상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용주사 절 마당에 서 있는 홍살문의 존재는 이른 시기에 찍은 사진임을 알려준다. 현릉원과 능침사찰로 1790년 건축된 용주사는 장헌세자(사도세자)의 영가를 모신 호성전(護聖殿)의 존재로 하여 홍살문이 설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봉선사와 봉은사에 홍살문이 있었던 이유와 같다.

그러나 1895년 갑오경장 이래 왕릉 수호사찰들의 위상에 변화가 왔다. 기존의 원찰로서 누렸던 지위를 도전받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선릉(宣陵)·정릉(靖陵)의 제향 조포사인 봉은사는 사패받은 전답 중 양근 6결, 교하 6결, 시흥 3결, 양성 2결, 진위 30부에 대하여 면세를 받았는데, 세금을 내서 막중한 향사에 지장을 받았다. 이에 용주사의 예처럼 특별히 참작해달라고 봉은사 주지 해옹(海翁)의 이름으로 청원하였다. 사패전답에 대한 면세 요청을 한 셈인데, 용주사 위토 역시 면세하지 않을 것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1894년 용주사는 면세 혜택을 받았던 것이나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따라서 1896년 폐지한 영공읍진(營棚邑鎭) 소속 둔토(屯土) 중 궁내부 담당 둔토를 명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용주사 전답이 궁내부 소관 둔토로 확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주사는 현릉원과 건릉의 조포사로서 여러 사찰로부터 향탄전(香炭田)을 상납받았다. 전남 영암군 도갑사(道岬寺)로부터 건릉과 용주사 호성전의 향탄전 명목으로 매

5) 각사등록 근대편 公文編第22, 奎18154, 탁지부 편, 99책

년 200냥씩 상납받았다. 그러나 갑오경장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1895년 이래 영암군은 승총을 이유로 향탄전의 납부를 미루었다. 승총은 사위전답에 해당하는 것이고 향탄전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관리들의 농간은 극심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용주사는 1895년 이래 1898년까지 4년간 미납분을 납부토록 요구할 정도였다. 또한 전남 장흥의 보림사(寶林寺)는 현릉원 향탄전을 납부하는 사찰로 매년 향탄가 200냥을 납부해왔다. 즉 보림사는 1792년(정조 16) 현릉원의 원당이 되면서 보림사 사산(四山)이 향탄봉산(香炭封山)이 된 지 160여 년 동안 매년 200냥씩 향탄전을 상납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갑오경장을 즈음하여 1886년(고종 23)부터 10여년 동안 사세가 더욱 어려워져 몇 년간 미납하였고, 이를 탕감해달라는 청원을 넣고 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난 후 1899년 고종황제는 장헌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였고, 현릉원은 융릉(隆陵)으로 격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경장 이후 왕릉 수호사찰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과 능침수호 사찰의 위상을 상징하는 홍살문은 철폐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용주사의 홍살문이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11년 사찰령 이전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홍살문이 있는 용주사 사진은 1909년 『朝鮮古蹟圖譜』를 찍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쇄 발행은 1910년 이후로 볼 수도 있다.

4-3. (水原名所) 水原 遲遲臺 (原田繪葉書部 發行) / 뒷면 CARTE POSTALE

4-4. (水原名所) 水原神社 社殿/ 水原神社 正面階段 (原田繪葉書部 發行)

둘 다 모두 사진설명은 청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으며 뒷면은 CARTE POSTALE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로고는 해 뜨는 형상의 히노데(日之出) 상표이다. 히노데의

초창기 상표인 점으로 보아 하라다그림엽서부(原田繪葉書部)의 사진을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4-2>의 수원신사(水原神社)는 1915년 12월 설립 인가를 받아 1917년 10월에 건립되었다. 따라서 수원신사 사진엽서의 존재는 1917년 10월 이후 찍은 것이 된다.

이종학 선생 기증엽서에는 없지만 같은 시기 하라다그림엽서부(原田繪葉書部) 발행의 '水原名所' 시리즈 사진엽서로 ① 수원 방화수류정과 용연, ② 수원 四龍 축만제, ③ 수원 西湖溢流 및 항미정, ④ 수원고등농림학교 등이 있다. 이들 사진엽서에 사용된 사진은 수원신사가 건립된 시기와 비슷한 1910년대 말의 것으로 추정된다.

5-1. (水原名所) View of Suigen 조선식 건축을 대표하는 수원역의 美觀 / 뒷면

POST CARD

5-2. (水原名所) View of Suigen 盛大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西門

5-3. (水原名所) View of Suigen 옛날 王府의 요채치였던 烽火臺

5-4. (水原名所) View of Suigen 수원천의 풍취를 보여주는 華虹門

5-5. (水原名所) View of Suigen 사계를 조망하는 아름다운 방화수류정의 승경

5-6. (水原名所) View of Suigen 물소리 제언을 울리는 서호의 溢流

5-7. (水原名所) View of Suigen 모범림을 배경으로 가득찬 물을 보이는 서호의 승경

<5-1>~<5-7>은 이전의 청색 글씨의 설명문에서 검은 글씨로 바뀌었고, 특히 가로로 설명문을 달고 있어 여타의 사진엽서와는 다른 양식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水原名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영문표기 대신 'View of Suigen'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고 있다.

뒷면은 분홍색으로 'POST CARD'라 표기되어 있어 이전의 'POST CARDE'의 표기 엽서보다 시기적으로 후대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5-2> 서문은 1933년 새롭게 수리한 여장(女牆)을 볼 수 있고, <5-3>의 화홍문 역시 1932년 개축 이후의 사진이다. 이들은 1931년 수원지역 유지들로 조직된 '수원명소보존회(水原名所保存會,

이후 水原古蹟保勝會로 명칭변경)의 활약 덕택이기도 하다.

6-1. 조선민요/ 摘草/ 수원 화홍문 / 뒷면 POST CARD

6-2. 시원한 바람은 흐르고

히노데의 사진엽서 가운데 독특한 것으로는 조선민요를 함께 실은 사진엽서를 발행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화홍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6-1>은 소녀들의 씩개는 모습과 민요를 실고 있다. 뒷면 엽서의 표기는 주황색으로 POST CARD로 인쇄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후대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6-2>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서호의 아름다운 풍경 등을 <水原의今昔>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료인지 알려지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서호의 호반에서 놀고서' 스탬프 도장이 찍혀있어 흥미로운데, 스탬프는 아마도 권업모범장 또는 농사시험장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히노데의 '朝鮮名所' 시리즈 가운데 수원 관련엽서는 (12) 용주사, (14) 향미정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청광당 발행 '朝鮮名所' 시리즈의 경우 (1) 팔달문, (2) 화홍문, (3) 화홍문에서 북문의 조망, (10) 화령전, (14) 향미정, (15) 정종대왕릉 (18) 권업모범장 등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4) 향미정이 일치하고 있는데, 사진 자체는 다른 각도의 사진이지만 청광당 사진엽서가 히노데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 준다.

다) WAKAYAMA

이종학 선생 기증 수원관련 사진엽서의 가운데 '水原名勝' 시리즈 7장을 볼 수 있다. 사진엽서 앞면에는 기존의 '朝鮮名所', '水原名所'와는 다른 '水原名勝'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水原名勝'의 사진설명을 상세하게 달고 있고, 영어설명도 자세한 편이다.

뒷면에는 엽서의 표기로 파란색 글씨로 CARTE POSTALE로 적혀 있으며 엽서 중

간지점에 MADE IN WAKAYAMA를 써서 제작사를 나타내고 있다.

제작사는 'WAKAYAMA', 즉 와카야마(和歌山)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정확한 회사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7-1. (水原名勝) 全조선 농업지도의 원동력, 총독부 農事試驗場 VIEW OF THE GOVERNMENT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 뒷면 CARTE POSTALE

7-2. (水原名勝) 全조선 蠶業의 策源인 총독부 농사시험장 蠶絲部 THE SILK-THREAD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7-3. (水原名勝) 물소리 텅텅 제언에 울리는 서호의 溢流 MAGNIFICENT OF THE SLUICE OF LAKE SEIKO, SUIGEN

7-4. (水原名勝) 가득찬 水量으로 模範林을 둘러싸고 있는 西湖의 大觀 GRAND VIEW OF LAKE SEIKO, SUIGEN

7-5. (水原名勝) 옛날 王府의 요해처였던 수원을 그리워하는 烽火台 VIEW OF REMAINS OF SIGNAL-FIRE STAND, SUIGEN

7-6. (水原名勝) 盛大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西門 VIEW OF WESTERN GATE, SUIGEN

7-7. (水原名勝) 푸른 물이 가득찬 서호의 美觀 GRAND SCENE OF LAKE SEIKO, SUIGEN

히노데의 <5-2> (水原名所) View of Suigen의 단순화된 영어설명보다 와카야마의 <7-6> (水原名勝) View of Western Gate, Suigen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달고 있다. <7-6> 서문의 사진엽서는 새롭게 수리한 여장을 볼 수 있고, 노송의 가지만 보이고 대신 소가 등장하고 있지만 히노데(日之出商會)의 <5-2> 서문과 거의 비슷

한 구도와 설명을 담고 있다.

〈7-1〉 '총독부 農事試驗場'의 사진엽서를 통해 이들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본관 왼쪽으로 1924년 5월 4일 제막된 혼다(本田幸介)의 흉상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1906~1919년까지 권업모범장 場長을 역임한 인물이다. 또한 권업모범장이 농사시험장으로 바뀌는 것은 1929년의 일이다. 즉 총독부는 1929년 9월 17일 칙령 제279호로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官制'를 공포하여 권업모범장을 '農事試驗場'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진엽서는 1929년말 이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라) 기타

8-1. (그림엽서) 조선수원 화홍문 - 壽樹 / 뒷면 POST CARD

8-2. (그림엽서) 수원 장안문 - 多多羅義雄 筆 / 뒷면 東亞旅行社 京城支社

8-3. 園行乙卯整理儀軌 조선 정조20년간- 處容舞 / 뒷면 POST CARD 書物同好會 (京城)

일본인 화가 壽樹가 그린 화홍문 그림을 엽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발행처 미상이지만 이와 비슷한 것으로 東亞旅行社 京城支社에서 제작한 수원 장안문 그림엽서가 있다. 多多羅義雄이 그린 그림을 엽서로 만든 것이다.

특이한 엽서 가운데 하나로 서울의 書物同好會에서 제작한 '園行乙卯整理儀軌'의 處容舞 부분을 인쇄한 사진엽서가 있다. 書物同好會는 1938년말 결성된 조직이므로 원형을요정리의궤 사진엽서는 1939년 이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공공기관 발행 사진엽서

가)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에서 독자적으로 사진엽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갈

라 그림 속에 액자처럼 사진엽서를 배치하였는데 여타의 사진엽서에 비해 두꺼운 종이재질을 사용하였고, 테두리에 은박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특히 순정효황후(순종비)의 권업모범장 방문 사실을 중심으로 사진엽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1 李王妃殿下養蠶所之御巡視/ 溫突蠶室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朝鮮水原) / 뒷면 carte postale

가-2. 西湖溢流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朝鮮水原) / 뒷면 carte postale

가-3. 犢牛放牧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朝鮮水原) / 뒷면 carte postale

가-4. 小麥 作況 / 뒷면 carte postale

〈가-1〉 순정효황후의 순시 모습을 담은 사진엽서(59p)는 뽕잎을 먹는 누에를 그린 그림에 엽서 끝과 액자 속 사진을 은박 테두리로 둘러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설명문의 글씨는 붉은 색을 사용하였고, 뒤면에는 파란색 글씨로 carte postale 라 써있다.

〈가-2〉 서호 사진엽서 역시 대나무와 제언을 그린 그림에 액자처럼 항미정과 서호의 제언을 타고 넘는 물의 사진을 담았다. 그리고 〈가-3〉 송아지 방목은 보리와 클로버를 그린, 〈가-4〉 밀 작황은 각종 농기구를 배경 그림으로 그려 넣었다.

권업모범장은 순정효황후의 방문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식민농정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황실과 지속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을 선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순정효황후(순종비)는 1909년(융희 3) 6월 1일 친히 권업모범장을 순시하시고 양잠(養蠶)을 권장하는 휘지(徽旨)를 내리고 이 뜻을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으로 하여금 전국에 널리 알리게 하였다. 순정효황후의 권업모범장 방문은 1년전인 1908년 10월 2일 순종황제와 함께 방문했던 일이 있었다.

권업모범장은 1906년(광무 10) 일제가 한국의 농축산 기술 향상과 종자개량을 목적으로 설치한 관청이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한국의 농업을 일본 자본

주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농업구조의 개편을 서둘렀고, 이를 위해 농사개량이라는 명목으로 1906년 4월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원에 권업모범시험장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사업은 시험·조사보다는 지도·권장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1910년 소위 '한일합방' 조약 직후인 1910년 9월 30일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官制 가 반포되면서 본격적인 식민농정을 펼치는 농업기관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1909년 순정효황후(순종비)의 권업모범장 방문 사진엽서는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으로 조직 개편 이후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조선총독부 철도국

나-1. 화서문 안쪽(사진설명 없음) / 뒷면 POST CARD 水原風景

나-2. (그림엽서) 水原 鍊武臺 附近/ 뒷면 POST CARD

화서문 안쪽으로 사진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진만 게재하고 있다. 뒷면에 POST CARD의 표기와 중간지점에 '水原風景'이라는 명문을 인쇄하였다.

그림엽서로 연무대 부근이라는 설명을 달고 있지만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나 사진과 함께 '우미한 풍광이 성문·성벽 등 이조후기 전야한 遺構를 갖춰 인상적인 畵趣를 만들고 있는 수원, 이것은 그 성벽에 연하고 있는 아름다운 한 구도'라는 설명은 수원 화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이 그림엽서의 대상은 수원 연무대 부근이 아니라 화서문 서북공심돈 성벽 안쪽 그림이다. 서문 밖 들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참을 내가는 밥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인의 뒷모습과 노송이 어우러진 그림엽서이다. 연무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셈이다.

다) 조선총독부 발행

앞면에는 수원 우시장 사진을 설명 없이 담고 있으며, 뒷면에서 가로글씨로 엽서 가운데 영문표기와 水原牛市場(京畿道)을 파란색 글씨로 인쇄되어 있고, 하단부에 별도로 朝鮮總督府 發行 을 조금 어두운 색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1. 우시장 (사진설명 없음) - 뒷면 CATTLE MARKET AT SUI-GEN (KEIKI-DO) 水原牛市場(京畿道), 朝鮮總督府 發行

다-2. 수원권업모범장 Government Model Farm at Suigen - 수원에 本場을 두고 鮮船 이름있는 곳에 支場 5, 출장소·시험소·강습소 각 1개소씩을 설치하여 농산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 뒷면 POST CARD

다-3. 수원권업모범장 Government Model Farm at Suigen - 수원에 本場을 두고 선내 이름있는 곳에 支場 5, 출장소·시험소·강습소 각 1개소씩을 설치하여 농산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 뒷면 POST CARD

다-4. 水原邑의 남문으로 이조 정조왕(130년전)의 건축, 이외에 당시 성벽 누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많다. / 뒷면 POST CARD

〈다-1〉 수원 우시장 사진엽서는 여타의 수원 우시장을 보여주는 사진 가운데 가장 질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2〉와 〈다-3〉은 같은 권업모범장 사진엽서지만 설명문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다-2〉와 검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 〈다-3〉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사진엽서를 몇 번에 걸쳐 인쇄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뒷면의 사진엽서의 표기는 모두 녹색으로 POST CARD의 영문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권업모범장에 대하여 '수원에 本場을 두고 조선 안에 이름 있는 곳에 支場 5, 출장소·시험소·강습소 각 1개소씩을 설치하여 농산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을 달고 있다.

권업모범장이 수원 본장 이외에 지장이 5개가 되는 시점은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 반포되면서였다. 즉 대구·평양·독섬(蘆島)·용산·목포의 5개 지장을 설치하여, 1本場, 5支場, 1學校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14년 3월 대구지장(大邱支場) 및 평양지장(平壤支場)이 폐지되고 연구적 성격을 가진 원산출장소는 규모를 확장해서 덕원지장(德源支場)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잠업의 연구·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지장을 폐지하고 새로이 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를 설치하

였다. 따라서 이들 권업모범장 사진은 1914년 이전의 모습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4>는 1931년 수원을 승격 이후의 사진엽서이다. 수원군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격된 것은 1931년 4월 1일의 일이다. 또한 만국박람회 기념 스탬프 도장이 찍혀있는데, 수원을 승격이후 만국박람회는 1933년 미국 시카고 박람회, 1935년 벨기에 브뤼셀, 1936년 스웨덴 스톡홀름, 1937년 프랑스 파리박람회 등이 있다.

라)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繪葉書 조선총독부 수원고등농림학교> 엽서 봉투와 함께 사진엽서 6매가 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선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진엽서에 대한 설명은 자세한 수치를 동원하여 상세하게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많은 시설물을 보다 많이 설명하기 위하여 모든 사진엽서는 사진 2장을 한 면에 배치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

9-1. 本校 附置 實業補習學校(1939년 12월 신축) / 뒷면 POST CARD

9-2. 寄宿舍- 新寮(1~5寮까지 수용학생 약 120명), 舊寮(온돌식 3동의 건물로 6~8로 나뉘며, 45명 수용)

9-3. 演習林- 威鳳瀾(전북, 위봉산 연습림내), 낙엽송림(경기 수원연습림, 57,000ha)

9-4. 畜舍- 鷄舍와 豚舍, 羊舍

9-5. 養蠶室과 作業室- 양잠실(농림전문학교 시대 1921년 건축), 농장작업실(1924년 건축) 및 양봉장

9-6. 實驗室- 화학실험실, 동식물실험실(모두 1921년 4월 건축) / 뒷면 POST CARD

9-7 (칼라 사진엽서) 수원고등농림학교 생도 화학실험/ 발행처 불명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 실업보습학교의 건물 신축은 1939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들

사진엽서는 1940년대 제작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종학선생 기증 엽서에는 없지만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것으로 校舎(上), 實習狀況(下)을 담고 있는 사진엽서가 있다. 내용설명으로 “農學科, 林業科를 두고 수업연한 3년, 4학급으로 나뉜다.”고 적혀 있고, 아래 실습상황은 모내기 모습을 담고 있다.

04_결론

일본의 경우 사진엽서의 제작 유통은 1859년 개항된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864년 8월 영국·이탈리아·미국·네덜란드 4개국 함대의 시모노세키 포격을 통해 서구 열강의 힘을 확인한 일본의 적극적인 서양문물의 수용 분위기에 편승한 일련의 서양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의 요행수를 노리며 일본의 요코하마에 몰려들었던 때였다. 이들 외국인에 의한 새로운 사진술은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1869년 즈음 일본의 풍물 사진을 인화지에 프린트하고 앨범에 붙여서 선물용으로 파는 일을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때 사진 가격은 한 장당 2달러, 100장짜리 [완전판 일본앨범(Japan Albums complets)]의 경우 200달러의 비싼 가격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일본앨범은 크게 나뉘 2종류의 이미지로 나뉜다. 하나는 각지의 풍경·건축물 등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풍속과 관습이었다. 이러한 구별은 이후 사진엽서의 큰 흐름이 되었다.

1880년 중반 즈음 외국인에게 사진기술을 배운 일본인들은 촬영에서 앨범제작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대에는 일본인 사진가들도 ‘요코하마 사진’의 제작판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즈음 ‘일본취미(Japanism)’는 훌륭한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요코하마 사진을 중심으로 한 사진화(寫眞畫)는 1895년 수출고가 6,566엔에 달할 정도였다. 1899년 다마무라(玉村康三郎) 사진관이 미국 보스턴 상인으로

부터 100만장의 사진을 주문받을 정도였다. 1900년대 이후 이미지를 보다 싼값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림엽서나 콜로타입, 사진동판 등의 인쇄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요코하마 사진'은 차츰 생기를 잃었다. 또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그럭저럭 근대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일본에 대한 서양의 일본주의나 일본적 이국정취도 다소 퇴색되었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일본의 사진엽서 사업은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전파되고 점차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한반도까지 옮겨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회사의 단순한 상업적 동기 이외에도 일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진과 사진엽서를 활용하였다. 즉 동일한 문화권으로 서구문물의 수입에서 앞섰던 일본은 제국주의로 발전하였고,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인에게 지속적으로 조선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국일본의 발전된 모습, 혹은 일본에 의해 변화되고 발달된 것처럼 보이는 조선의 모습이었다.

엽서가 기본적으로 여행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일정한 과시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추억을 담은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이국적 취향과 복고적 취미를 함께 해소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역사적 명소(名所)와 고적(古蹟)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제 시기 만들어진 사진엽서의 상당부분도 고적 또는 역사적 명소를 간직한 도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서울과 평양·경주·부여·개성 등 옛 도읍지와 수원을 비롯한 전통적인 대도시들의 유적을 담은 엽서가 그것들이다. 또한 이미 망해버린 조선에 대한 향수와 상품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 조선황실 관련 사진엽서를 대량으로 만들어 팔았다.

그리고 관광의 측면에서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대량의 선전용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고적에 더하여 고찰 및 해수욕장과 피서지 등을 선전하였는데, 반드시 철도역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어 제작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근대의 상징인 철도를 이용하여 여가를 누리며 사는 식민지 모국 일본인들에게 조선으로 여행을 오라는 셈이다. 이는 특히 1930년대 급격하게 제작 배포되었고, 주목할 만한 관광 상품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던 '금강산'과 관련한 사진첩과 사진엽서가 대량으로 만들어졌던 시대적 추세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수원은 경부선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화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고적이 많이 남아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선전되었다. 더욱이 일제 식민농정의 중심센터였던 권업모범장(농사시험장)과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존재는 일본인들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원관련 사진엽서는 수원의 고적과 일본인들의 자랑거리로 대별되었고, 전국적 유통망을 지닌 업체를 비롯하여 수원에 근거한 淸光堂 등을 통해 대량으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의 일반적인 제작, 유통 매커니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헤게모니와 근대성 구축 자체는 폭력을 수반한 강제에 의해 수립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일제에 의한 발전으로 묘사되는 사진엽서 속의 건축물과 도로 등은 근대적 휘황함이 주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착시현상은 새롭게 부설된 철도와 도로(신작로)가 폭압적 강제를 통한 부역에 의한 것이었고, 토지와 재산을 빼앗긴 가난한 농민들의 피눈물을 애써 눈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가 만든 자료에 근거한 수량적 통계에 의하여 일제 식민지시기 경제적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제시기 일본인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낙후된 조선과 발달된 제국일본의 모습을 교묘히 보여주고자 했던 사진엽서를 지금 시점에서 아무런 비판없이 신뢰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6) 이이지와 코타로(飯沼耕太郎), 양수영 역, 『사진의 힘』, 타임스페이스, 1997.



사운 이종학 기증 사진 엽서 I

사진 엽서로 읽는 근대 수원

• 발 행 일 | 2009년 12월 31일

• 편집·발행 |  수원박물관
SUWON MUSEU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문길 443

전화 031-228-4150, 팩스 031-228-4149

<http://swmuseum.suwon.ne.kr>

- 총 괄 | 한상담
- 기 획 | 이달호
- 진 행 | 한동민, 이상희
- 원고 집필 | 한동민, 이동근
- 교열 및 편집 | 한동민, 이동근
- 제 작 | 한라애드플러스(031-247-5141)

발간등록 번호 : 71-3740159-000005-14

ISBN : 978-89-962466-7-1 04600 / 978-89-962466-6-1(세트)

* 본 사진집의 저작권은 수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본 사진집에 수록된 엽서 사진은 문서를 통한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또는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원박물관
SUWON MUSEU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문길 443(이의동 1088-10번지)

Tel. 031-228-4150 / Fax. 031-228-4149 <http://swmuseum.suwon.go.kr>